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북한 여성 지위 변화에 대한 국가의 반격

- 김정은 시대, 공간 문헌에 나타난 여성 담론을 중심으로 -

The state responses to the changing status of women in North Korea under Kim jong-un:
Focusing on state's discourse and literature

곽 희 양

북한대학원대학교

2024년 6월 일

석사학위논문

북한 여성 지위 변화에 대한 국가의 반격

- 김정은 시대, 공간 문헌에 나타난 여성 담론을 중심으로 -

The state responses to the changing status of women in North Korea under Kim jong-un:
Focusing on state's discourse and literature

지도교수 김 성 경

이 논문을 북한학 석사학위(사회문화언론전공)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6월 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사회문화언론전공
곽 희 양

곽희양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2024년 6월 일

목 차

국문요약 ····· i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이론적 배경 ····· 3
1. 담론분석 ····· 3
2. 페미니즘: 가부장제의 '반격' ·····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 8
1. 선행연구 검토 ····· 8
2. 연구방법 및 분석틀 ····· 12

제2장 시장화 전·후 여성 지위 변화 ····· 14
제1절 시장화 이전 여성 ····· 14
1. 국가 가부장제의 형성 ····· 14
2. 국가 가부장제 아래 여성 지위 ····· 17
제2절 시장화 이후 여성 ····· 19
1. 시장화와 사회 변화 ····· 19
2. 시장화와 여성 지위 ····· 22

제3장 시장화 이후 여성 관련 공식 담론 ····· 24
제1절 『로동신문』과 『조선녀성』 ····· 24
1. 전통적 여성 역할 이행을 위한 교육 ····· 29
가. 출산과 양육 ····· 29
나. 가족구성원과 관계 ····· 31
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어머니 ····· 34
라. 수령에 충성하는 여성 ····· 35

마. 노동하는 여성 ····· 36
바. 건전한 외모 가꾸기 ····· 38
사. 전통을 이용한 이혼 만류 ····· 39
2. 전통적 여성 역할 유지를 위한 처벌 위협 ····· 40
가. 비공식 영역에서 '큰 수익' ····· 40
나. 상위 계층으로 '구별 짓기' ····· 41
다. '성적 매력' 드러내기 ····· 42
3. 변화된 여성 역할 묵인과 독려 ····· 44
가. 변화한 공식 노동과 조직 생활 ····· 44
나. 엘리트 여성 ····· 45
제2절 담론 전개 양상의 원인 분석 ····· 46
1. 전통적 여성 역할 이행 위한 '교육' 강조의 원인 ····· 46
2. 전통적 여성 역할 유지 위한 '처벌 위협'의 원인 ····· 48
3. 변화된 여성 역할 '묵인과 독려'의 원인 ····· 50
4. 시장화 전·후 국가 대응의 차이 ····· 51

제4장 문학작품에 나타난 국가의 반격 ····· 53
제1절『조선문학』속 담론 전개 양상 ····· 53
1. 사적 이익 추구 여성에 대한 '간접 압박' ····· 54
2. 국가·남성 연대 '균열 지우기' ····· 63
3. '남성을 보조'하는 엘리트 여성 ····· 71
제2절 국가 반격의 양상: 갈등의 봉합 ····· 79

제5장 결론 ····· 81
참고문헌 ····· 84
ABSTRACT ····· 89

표 목 차

【표1. 선행연구】 북한 여성 연구의 주제별 동향 ····· 8
【표2. 분석기준】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국가의 태도 ····· 12
【표3. 전국어머니대회】 제1차~5차 전국어머니대회 현황 ····· 26
【표4. 3·8부녀절】 김정은 시대 3·8부녀절 노동신문 사설 제목 ····· 27
【표5. 3·8부녀절】 3·8부녀절 노동신문 사설의 논리 구조 ····· 28

그 림 목 차

【그림1. 가족구성원 관계】 가화만사성 ····· 33
【그림2. 사회주의 대가정】 처녀어머니 ····· 35

국문요약

북한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국가의 반격

- 김정은 시대, 공간 문헌에 나타난 여성 담론을 중심으로 -

사회문화언론전공 곽 희 양

지도교수 김 성 경

본 연구는 시장화 이후 변화한 여성의 지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을 통해 경제력을 얻게 된 여성은 과거보다 사적 이익을 중시하게 됐다. 최대한 늦게 결혼했고 다출산을 피했으며, 이혼도 늘었다. 이는 여성 억압을 바탕으로 유일 지배체제를 유지해 온 가부장적 국가(북한 정권)에 위협 요소가 된다. 가부장적 국가는 여성에게 모종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국가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는 참고점은 '반격(백래시·backlash)'이라는 키워드다. 반격은 "과거에는 누렸지만, 현재는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강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은 국가의 대응이 네 가지 태도로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전통적 여성 역할 이행을 위한 '교육'과 전통적 여성 역할 유지를 위한 '처벌 위협', 변화된 여성 역할에 대한 '묵인', 변화된 여성 역할에 대한 '독려'다. 전통적 여성 역할을 위한 '교육'과 '처벌 위협'을 '반격'으로 정의했다.

『로동신문』의 제4·5차 전국어머니대회, 3·8국제부녀절 보도와 『조선녀성』을 살펴본 결과, 가부장적 국가는 주로 전통적 여성 역할을 위한 '교육'의 방식으로 여성에게 반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는 광범위하게 진행된 여성의 시장 활동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며, 이미 고강도 노동을 하는 여성에게 '처벌 위협'이 국가를 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가부장적 국가는 큰 수익을 벌어들이는 시장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상위 계층으로 구별 짓기, 성적 매력을 드러내는 행위에는 '처벌 위협'의 방식으로 반격을 가했다. 이는 시장화 이후 새롭게 나타난 양상이다.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계급화'나 '인민 평등'의 원리가 와해되는 것을 막고, 시장 경제가 계획 경제보다 비대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분석됐다.

가부장적 국가는 생계유지를 위한 시장 활동은 '묵인'했다. 이는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장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엘리트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독려'했다. 하지만 이는 여성 고급 노동력에 대한 국가의 필요 때문이지, 여성의 변화된 지위에 대한 지지는 아니었다.

『조선문학』의 문학작품에서 나타난 국가의 반격은 이보다 복합적이었다. 시장화 이후 문학작품에서는 새로운 여성 캐릭터가 등장했다. 시장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의 요구와 남성의 요구 중 하나를 포기하며, 남성을 압도하는 여성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가부장적 국가는 새로운 여성 캐릭터들이 모두 전통적인 여성의 위치로 회귀하도록 유도했다. 공동체적 압력을 가하고 여성에게 부과된 짐을 일시적으로 감추며, 여성의 희생을 윤리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결론적으로 가부장적 국가는 시장화 이후 변화된 여성의 지위에 대해 복수적이고 중층적인 방식으로 '반격'에 나섰음을 확인했다.

가부장적 국가는 지위가 변화된 여성에게 반격을 가해, 가부장 질서를 바탕으로 한 국가 유일 지배체제의 균열을 막아내려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주제어**: 가부장적 국가, 북한 여성, 시장화,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의 공존, 전국어머니대회, 3·8국제부녀절, 노동신문, 조선녀성, 조선문학, 반격(Backlash·백래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시장화 이후 변화한 여성의 지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중반 경제 위기 이후 시장이 커졌다. 시장의 주축인 여성들은 경제력을 얻었다. 이로 인해 여성의 지위는 시장화 이전과 달라졌다. 북한은 남녀평등을 이미 이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적 질서를 통해 국가를 유지해왔다. 그렇다면, 국가는 시장화로 변화된 여성 지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그리고 특정 대응 방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담론분석으로 살피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가부장적 사회주의는 '혁명을 통해 획득한 평등이라는 사회주의적 원리 위에서 성차별적 가부장제의 특성이 관철되는 제도'이다. 박현선은 가부장적 사회주의는 온경적 가부장제의 모습을 띤다고 분석한다.[1] 국가는 인민을 보살핀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아버지는 지도자, 어머니는 당, 자녀는 인민'이라는 위계가 형성된다. 이 위계에 따른 비민주적 모습이 직장과 학교 등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권력을 우선한다.

북한의 유일 지배체제는 가부장제와 얽혀있다. 북한은 1970년대 '세포화된 가족주의'를 형성하는 등 국가 운영에서 가부장적 질서를 이용해왔다.[2] 북한 여성은 당과 지도자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받았다. 전통적인 '어머니', '아내', '며느리' 역할이 주어졌다.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 동원에 나서는 것도 여성 몫이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의 영향력이 커졌다. 2020년대 현재 계

1) 박현선, 『현대북한사회와 가족』(서울:한울아카데미, 2003), pp.42~47

2) 강진웅, "남북한의 국가와 가족: 체제 변화와 가족주의의 변형," 『한국사회학』 제44집 5호, 2010년, pp.21~28

획 경제가 우위에 있긴 하지만,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가 병행된다. 남성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시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여성들은 기존에 없던 경제력을 얻게 됐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성은 전통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서 벗어나려 한다.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보다는 사적 이익을 우선하기도 한다.

변화된 여성의 지위는 가부장적 국가의 질서에 균열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국가와 남성에 순종·헌신하라는 국가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명령에서 이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는 가부장적 질서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해왔던 국가 입장에선 '위험 요소'다.

그렇다고 국가가 변화된 여성을 무작정 억압할 수만도 없다. 시장의 주요 세력인 여성을 억압 일변도로 대할 경우 시장이 위축되고 시장을 통한 주민들의 수요 충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역시 사회 안정을 흔드는 요소다.

시장 활동을 통해 변화된 여성의 지위가 가부장적 국가의 질서에 균열을 내지만, 그렇다고 시장 활동 여성을 무작정 억압할 수도 없는 상황에 국가는 놓여있다. 이 상황에서 국가는 여성들을 어떻게 대할까. 이를 살피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부장적 국가(북한 정권)는 시장 활동을 통해 지위가 변화된 여성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까.

둘째, 가부장적 국가가 여성을 상대로 해당 태도를 취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다만 본 연구에서 시장 활동을 통한 여성의 지위 변화가 민주주의 확대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은 후순위로 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는 성별 분업체계를 완화했다는 평가와 여성의 노동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이와 비슷하게 북한 여성의 시장 활동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공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고찰보다는, 시

장 활동을 통해 지위가 변화된 여성에게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우선으로 살핀다.

제2절 이론적 배경

1. 담론분석

인간은 여러 의미망으로 이뤄진 세계 위에 놓여있다. 거미줄처럼 놓인 의미망을 통해서만 내·외부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 특정한 의미 체계를 담고 있는 의미망, 이를 '담론(談論)'이라 부를 수 있다. 담론은 "의미를 고정시키며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생산의 체계"이다.[3)]

담론은 다양한 곳에서 나타난다. 일상의 대화, 공적인 문서, 미디어, 연설문, 시각적 기호와 이미지, 음악 등 거의 모든 의사소통 수단이 특정한 의미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4)]

담론은 새로 만들어지고 변형되며 쇠락한다. 다양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생성된다. 개인·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담론은 충돌한다. 또는 합쳐지거나 쇠락한다. 여기엔 특정한 맥락과 조건, 그리고 권력의 힘이 작동한다. 따라서 담론분석은 사회 내 불평등하고 불균등한 권력 관계를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새로운 개인·집단의 출현과 권력획득, 쇠락의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일이다.

담론은 수행적 성격을 띤다. 담론은 현실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현실을 만들어 낸다. 자신이 지지하는 담론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인간은 현실을 바라

3) 차태서, "담론분석이란 무엇인가?: 국제정치학의 경우," 『국제·지역연구』 29권 1호, 2020년, pp.143

4) 이기형,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4권 3호, 2006년, pp.110

보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담론은 인간이 어떤 색깔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봐야 하는지를 정해주고, 특정 렌즈를 낀 인간은 그 렌즈 색깔에 맞게 사고·행동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담론을 분석하는 일은 각 시대의 인간을 둘러싼 의미 체계를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한 인간의 사고·행동은 특정 의미 체계에 의해 구성되거나 제약돼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의미 체계는 다양한 의미들이 생성·결합·쇠퇴 등을 과정을 거쳐 형성되며, 이 과정에는 권력의 힘이 작동한다. 따라서 담론을 분석하는 작업은 사회 권력의 속살을 살피는 일이 된다.

2. 페미니즘: 가부장제의 '반격'

북한·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여성론을 받아들였다. 엥겔스(Friedrich Engels)는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여성에 대한 억압이 나타났다고 봤다. 남성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고정된 여성을 필요로 했고, 여성은 그런 남성에게 종속됐다. 따라서 가부장제에서 여성을 해방하려면 사적 소유를 폐지해야 한다고 엥겔스는 주장했다.[5] 또 여성은 공적 영역에 참여하고, 여성이 맡았던 집안일과 양육은 공적 영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 페미니즘에서 여성 억압은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와 연관돼 있다. 따라서 자본가의 착취를 없애면 여성 억압도 사라질 것이라 본다. 여성 억압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은 의미가 있지만,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 억압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마르크스 페미니즘은 소련의 여성 정책에, 이는 다시 북한의 여성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17년 10월 사회주의 혁명 이후 소련은 그해 이혼법·가정법 제정을 통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다고 선언하고 쉽게 이혼할 수 있게 했다.[6] 1918년 헌법을 제정해 여성에게 최저임금을 제공했다. 소련의

5) 프리드리히 엥겔스, 김대웅 역, 『가족·사유재산·국가의 기원』 (서울: 아침, 1991) pp.7~10

여성부(젠오트젤)는 탁아소,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했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안일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북한은 1945년부터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소련 여성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봉건적 신분질서를 무너뜨리고 여성을 사회주의 국가의 주역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현재 북한이 '여성 해방을 이뤄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시기 기울인 노력을 일컫는다.

반면 서구의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주축으로 성장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인간이 '합리성'이라는 능력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뿌리를 둔다.[7]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미국에서 1910년대 여성 참정권 운동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1920년대 참정권 획득 이후 세계 제2차대전 등으로 주춤했다가 1960년대 다시 활발해졌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을 목표로, 성별 고정관념을 배척한다. 여성에게 불리한 법적·제도적 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여성운동의 대중성 확보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해 구조적 불평등 문제에는 소홀했다. 백인 중산층 여성을 위한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유주의 페미니즘 이후에는 급진주의 페미니즘, 탈식민 페미니즘 등이 등장했다. 68혁명을 전후로 유럽을 중심으로 등장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억압'을 중시했다. 여성에게 강요되는 모성의 역할과 가정폭력을 문제 삼았다.[8] 그러나 여성 억압을 생물학적 조건에 의한 것으로 규정한 탓에 성 소수자를 배제하거나 남성과의 연대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탈식민 페미니즘(제3세계 페미니즘)은 제3세계 여성이 겪는 이중차별에 주목한다. 같은 국가 내 남성의 가부장적 지배는 물론 제1세계의 지배와 착취를 들여다본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는 주변부 여성의 경험을 담론으로

---

6) 한정숙, "알렉산드라 콘론타이와 여성주의," 『러시아연구』 제18집 2권호, 2008, pp.310~311

7) 공미혜, "페미니즘의 기원과 역사", 『여성우리』, 2019년. pp.6~9

8) 공미혜, pp.7

만들려고 한다. 에코 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억압이 자연에 대한 억압과 연관됐다고 본다. 여성 문제에 생태학적 관점을, 생태학적 문제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로 통합된 페미니즘은 있을 수 없다. 여성은 계급·인종·문화·종교 등에 의해 다양하게 분리돼 있고, 여성이 경험하는 억압의 모습과 정도도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성에 대한 억압이 다양한 불평등과 맞물려 있음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를 유색인종 페미니스트인 크렌쇼(Kimberlé Williams Crenshaw)는 1989년 '교차성'[9]이라고 명명했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불평등은 계급·인종·문화·종교 등 여러 차원에서 교차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다. 한 차원에서만 여성에 대한 억압을 바라보는 것은 자칫 복합적인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을 옹호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10]

반면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흐름이 있다. 여러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의 지위가 기존보다 상승하자,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여성 혐오와 유사하면서도, 여성의 지위 상승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성 혐오와 차이점을 갖는다. 이 같은 반발은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흑인민권운동, 성소수자 인권운동에서도 나타났다.

팔루디(Susan Faludi)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을 '반격(backlash·백래시)'이라고 명명했다. 1970년대 미국의 여성운동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여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1980년대 미국 보수주의 남성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공격을 가했다. 이를 '반격'이라 부른 것이다. "여성의 (향상된) 권리에 대한 강력한 역습이자 반격"[11]은 남녀평등을 위한 여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타난다. "여성들이 (완전한 평등이라는) 결승선에 도착하기 한참 전에 여성들을 멈춰 세우는 선제공격"[12]을 남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

9) 로즈마르 퍼트넘 통·티나 레프난디스 보츠,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서울: 학이시습, 2019) pp.201~203

10) 신경아, 『백래시 정치: 안티 페미니즘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파주: 동녘, 2023), pp.38

11) 수전 팔루디, 『백래시: 누가 페미니즘을 두려워하는가?』, (파주: ㈜북이십일 아르테, 2017), pp.43

12) 수전 팔루디, pp.45

미국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보수주의 남성들은 1980년대 초 평등권 수정법안을 무산시켰다. 미디어를 통해서 여성의 역할을 출산과 돌봄의 영역으로 제한하려 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부자연스러운 일로 치부했다.

보수주의 남성들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이들은 여성들이 남성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주장했지만, 남성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신자유주의 확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회에 진출한 여성이 우울감에 시달린다고 남성들은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직장과 가정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괴롭힌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보수주의 남성들은 구조적 불평등은 무시한 채 직장과 가정 중 무엇을 고르든 여성의 책임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13)]

보수주의 남성들의 반격이 나타난 이유는,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남성들이 과거에 누렸던 권력을 누리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남성은 과거에 잘하지 않았던 집안일을 더 하게 됐고, 직장에서 여성과 경쟁하게 됐다. “과거에는 누렸지만, 현재는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해”[14)] 여성에게 반격을 가한 것이다.

미국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한 1980년대 미국 보수주의 남성의 태도는, 북한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국가(북한 정권)의 태도를 살펴보는 데 참고점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지위 변화로 ‘과거에는 누렸지만, 현재는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고 싶어하는 이들이 북한에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화로 인한 북한 여성의 지위 변화가 자유주의 페미니즘적 성격을 띤다는 점도 1980년대 미국 보수주의 남성의 태도를 참고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시장 활동으로 경제력을 얻은 북한 여성은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늘리려 하고 있다. 이는 북한 여성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북한 여성이 과거보다 자신의 자유를 늘

13) 수전 팔루디, pp.266

14) 신경아, pp.42~44

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간 북한 여성을 억압해왔던 국가는 모종의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1. 선행연구 검토

국가와 여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간 '여성'에 초점을 맞춰졌다. 주로 여성이 국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방식이었다.

선행연구 곳곳에는 국가와 여성의 관계 변화에 주목하는 시선이 녹아있다. 송현진은 북한 여성 연구를 8가지 주제로 구분했다.[15] 한국전쟁과 여성 경험, 여성의 노동과 직업 생활, 여성의 재생산·모성 경험, 국가와 여성 섹슈얼리티, 시대별 여성의 삶, 여성 교육과 조직 생활, 여성 지도자와 인물, 남북한 여성사 비교 등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담론분석, 구술생애사, 심층 면접이 쓰였다.

【표1. 선행연구】 북한 여성 연구의 주제별 동향[16]

주제	연구 목록 (연도)
한국전쟁과 여성경험	·박영자, "6·25전쟁과 북한여성의 노동세계"(2006) ·조영주, "북한 여성의 전쟁 경험과 인민되기"(2013) ·안태윤, "북한여성들이 겪은 한국전쟁"(2014)

15) 송현진, "북한 여성의 삶을 역사화하기: 북한 여성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현대북한연구』 26권 2호, 2023

16) 송현진, pp.145~146 표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김태우, 『냉전의 마녀들: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2021)
여성 노동과 직업생활	·박영자, “북한의 여성노동정책(1953년~1980년대)”(2004) ·김화순 외, “첫 직장과 결혼”(2020) ·조정아, “김정은 시대 북한 여성의 노동과 직업”(2020) ·이지연, “초국적 공간에서 북한 여성의 노동과 재현의 정치”(2023)
국가와 모성·재생산	·곽수진, “북한 여성의 출산 경험연구”(2014) ·김영선, “1960~70년대 북한의 재생산 정책과 젠더의 문화정치”(2014) ·김석향·박민주, “북한 내 재생산 영역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실천”(2016) ·조영주, “북한이탈여성의 구술전략과 담론적 수행: 어머니되기 경험을 중심으로”(2015) ·김현아, “이동하는 북한 여성의 모성실천 연구”(2019) ·김경희·강은애·손명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2016)
국가와 여성 섹슈얼리티	·권금상,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2015) ·권금상, “규범에 경합하는 북한여성들의 성적 실천”(2016)
시대별 여성의 삶	·여성한국사회연구소,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2001) ·조영주, “북한 여성의 실천과 젠더레짐의 동학”(2012) ·안태윤, “한 엘리트 북한 여성의 생애사로 본 분단체제 하의 여성의 삶과 가족의 생존 전략”(2015) ·안태윤, “전후 북한 여성의 삶과 탈북의 전략적 선택”(2016)
여성 교육과 조직생활	·안재희·민무숙, “탈북여성을 통해 본 북한 여성의 교육경험 분석”(2003) ·양옥경 외, “지역사회 복지자원으로서 조선민주녀성동맹원 역할의 가능성 탐색”(2018)
여성지도자와 인물	·김도형, “북한의 여성과 여성 혁명가에 관한 이미지 연구”(2020) ·김은정, “북한의 영웅서사, 60년의 간극: 『조옥희』를 중심으로”(2016) ·송현진, “북한 모성영웅의 등장 배경과 의미”(2021) ·송현진, “김정은 체제 ‘여성영웅’ 정치의 유형과 특징”(2021) ·신유리·권경미, “허정숙 다시 보기: 북한에서의 삶을 중심으로”(2021)

	·최진이, “북한 여성시인 렴형미 연구”(2006)
남북한 여성사 비교	·이배용, “여성사 서술에 대한 남북한 비교 연구”(1997) ·윤택림·함인희, “남북한 여성 생활문화의 이해: 집안일과 육아를 중심으로”(2005)
여성 변화에 대한 국가의 대응	**?**

국가와 여성의 관계가 두드러진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미경(2004)은 주로 시장화 이전 시기 『조선녀성』을 통해 국가가 제시하는 이상적 여성상을 살폈다.[17] 국가는 자녀를 혁명 투사로 양육하기 위해 여성이 먼저 공산주의적 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당과 수령에 충성을 다하는 여성상으로 이어졌다. 또 근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여성상으로 나타났다. 이상적 여상상은 집안일과 양육, 근로 활동 등 여성에게 과도하게 주문되는 역할을 합리화하는 기제로 쓰였다고 이미경은 분석했다.

김석향(2005)은 『조선녀성』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강조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18] 건국 시기에는 ‘남녀평등’ 조치의 결과로 남성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여성에 대한 서술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었다. 대신 농촌과 탄광, 건설 현장에서 노동에 참여하면서 남성 노동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음식을 제공하는 여성에 대한 서술이 늘었다. 정식 노동자보다는 노동자의 ‘아내’나 남성을 위한 ‘예비 인력’으로 서술됐다고 김석향은 분석했다.

조정아(2020)는 북한이탈여성의 구술을 바탕으로 시장화 이후 여성 일자

17) 이미경, “이상적인 여성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여성정책: 『조선녀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4

18) 김석향,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담론 변화: 1950년대 이전과 1979년 이후 『조선녀성』 기사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2005

리에 대해 분석했다.[19] 여성들은 공식 영역의 직장보다는 비공식 영역의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선호했다. 공식 영역의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 중 상당수가 장사나 서비스 업종, 가내수공업의 비공식 노동을 병행했다. 공식 영역의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주로 경공업과 식료품 업종에서 일했다. 기업소에서는 '남성 = 관리자, 여성 = 일반 노동자'라는 젠더 위계가 작동했다.

조현정·권은별(2022)은 북한이탈여성 구술을 바탕으로, 시장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비공식 사회관계망을 넓히고 있다고 분석했다.[20] 시장 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가족·친척·동창·친구 등 친분 관계망을 두텁게 했다. 장마당의 대방·보위지도원·당 간부 등 경제 활동 관계망도 형성했다. 열성 학부모·인민반·여성동맹 등 지역사회에서도 경제적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관계망을 만들었다. 이들은 시장 활동으로 번 돈을 가전제품을 사거나 외모를 가꾸는 데 사용했다.

김경희·강은애·손명아(2016)는『조선녀성』과 북한이탈주민 구술을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어버이 담론과 사회적 모성 담론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고 분석했다.[21] 여성의 시장 활동 등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전통적인 어머니, 아내, 며느리 역할을 강조했다. 여성들은 가정에서 돌봄 노동뿐 아니라 시장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이중 노동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채연(2020)은 시장화 이후 김정은 시대 국가가 '모성 철학(Maternal Philosophy)'을 강조해 여성의 권위를 높이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이는 여성들을 복고적인 가부장제로 유도하려는 방법일 뿐이라고 분석했다[22]. 국가가 내세우는 모성 철학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도덕과 헌신, 충성을 유도하

19) 조정아, "김정은 시대 북한 여성의 노동과 직업,"『KDI 북한경제리뷰』2020년 7월호

20) 조현정·권은별, "시장활동에 참여했던 북한 여성들의 비공식 사회관계망 고찰,"『통일인문학』제91집, 2022

21) 김경희·강은애·손명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아시아여성연구』 제 55권 1호, 2016, pp.131~164

22) 강채연, "북한 여성노동력의 경제적 의미와 인권: 사회적 참여정책과 영향을 중심으로,"『아시아여성연구』 제59권 제2호, 2020, pp,7~45

는 국가중심적 논리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기 어렵다고 강채연은 분석한다.

본 연구는 국가와 여성의 관계에서 '국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물론 국가와 여성의 관계는 상호교환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지위가 변화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논문의 목적에 맞춰, 국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국가와 여성의 관계를 주로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봤던 선행연구와 차별점이기도 하다.

2. 연구방법 및 분석틀

가부장적 국가(북한 정권)가 시장 활동을 통해 지위가 변화된 여성들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국가는 ①전통적 여성 역할 이행을 위한 '교육'을 한다. ②전통적 여성 역할 유지를 위한 '처벌 위협'을 한다. ③변화된 여성의 역할을 '묵인'한다. ④변화된 여성의 역할을 '독려'한다. 이 중 ①·②를 여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보고, 국가의 '반격'이라고 정의한다. ③·④를 여성에 대한 우호적 태도로 본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분석 기준】 여성 지위 변화에 대한 국가의 태도

적대적 태도 (반격)	우호적 태도
	③ 변화된 여성 역할 묵인
① 전통적 여성 역할 이행을 위한 교육	
② 전통적 여성 역할 유지를 위한 처벌 위협	
	④ 변화된 여성 역할 독려

분석 범위는 『로동신문』의 전국어머니대회와 3·8국제부녀절에 대한 보도 ,『조선녀성』, 『조선문학』으로 한다. 전국어머니대회는 북한의 최대 여성 행사이고, 3·8국제부녀절은 여성을 위한 명절이다. 김정은이나 최고인민위원회,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성동맹) 간부들이 펼치는 공적 담론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선녀성』은 조선노동당 외곽기구인 여성동맹이 발행한다.『조선문학』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지도·검열을 받은 조선작가동맹이 발행한다. 당이 곧 국가인 북한에서, 두 잡지는 국가의 공식적인 목소리를 대변한다.

국가의 담론을 반복·확대하는『조선녀성』과『조선문학』에서는 국가 이외의 목소리도 엿볼 수 있다.『조선녀성』에는 여성동맹원이 쓴 글도 실린다. 이를 통해 여성이 직장·가정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와 고뇌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문학』에 담긴 문학작품 역시 여성이 실제 처한 직장·가정을 배경으로 둔다.

연구 범위는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24년 4월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한다.『조선녀성』과『조선문학』은 해당 자료가 국내 유입된 2022년 12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북한 문헌에서 좀처럼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지 않음을 유의한다. 북한은 사상교양방법의 하나로 '긍정감화교양'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감화교양은 지도자에 대해 불충성하거나 집단주의 정신에서 벗어난 행위들은 되도록 감추고,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 선전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긍정은 (중략)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며, 긍정은 그 자체가 부정에 대한 비판으로 사람들에게 부정을 이겨내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밝혀준다."[23]고 북한은 설명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시장화 전·후 여성의 지위 변화를 살핀다. 시장화 이전 북한에서 형성된 국가 가부장제와 그 아래서 여성의 지위가 어떠했는지 검토한다. 이후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시장

23) "(정치용어해설) 긍정감화교양," 『로동신문』, 2024년 1월 10일

화와 사회변화를 살핀다. 이로 인해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함께 살핀다.

3장에서는 시장 활동으로 지위가 변화된 여성을 대상으로 국가가 어떤 담론을 펼치고 있는지 살핀다.『로동신문』의 제4차·5차 전국어머니대회, 3·8 국제부녀절에 대한 보도와『조선녀성』을 통해서다.

4장에서는『조선문학』을 통해 문학작품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반격 양상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내용을 정리하고, 시장화 이후 북한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국가의 '반격' 양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제2장 시장화 전·후 여성 지위 변화

제1절 시장화 이전 여성

1. 국가 가부장제의 형성

북한은 1948년 건국을 전·후로 여성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했다. 봉건제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 김일성이 권력을 독점해가면서 여성 정책은 후퇴하고 국가 가부장제가 구축됐다.

건국 시기 여성에게 처음으로 경제권을 부여했다. 1946년 3월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발표를 통해서다. 토지를 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한 18~60세의 남성, 18~50세의 여성에게 토지를 할당했다(세칙 15조). 봉건제에선 얻지 못했던 여성의 경제권이 생긴 것이다. 이는 남성에 종속적인 여성의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북한은 이어 노동법령을 세워 여성을 보호했다. 1946년 6월 제정한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은 '동일한 로동을 하며 동일한 기술을 가진 로력자에게는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동일한 임금을 지불'(7조) 하도록 했다. 산전·산후 유급휴급제, 수유시간 보장, 야간노동금지 등도 명시했다.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권리를 보장했다. 1946년 7월 제정한 '북조선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은 '녀성들은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1조)고 규정했다. 여성들의 자유 결혼(4조)과 자유 이혼의 권리(5조), 동등한 재산·토지 상속권과 이혼 시 재산분할권(8조) 등도 명시했다. 남녀평등법은 획기적인 조치였다. 당시 여성들은 문밖 출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나, 하루 16시간 일하고도 일본 남성의 1/4가량의 보수를 받았기 때문이다[24]. 당시 남녀평등법을 지지하지 않는 남성들이 많자, 북한은 이 법에 규정된 '일부다처제 금지', '동의 없는 결혼 금지'를 재차 법으로 만들어 강제했다.[25]

1948년 9월 공포한 헌법에는 여성은 남성과 모든 부분에서 동등하다(22조)고 명시했다. 또 국가가 모성과 유아를 특별히 보호한다고 규정했다. 1948년 2월 발표한 '탁아소에 관한 규정'은 산후휴가를 마친 여성이 아이를 탁아소에 맡길 수 있게 했다. 이후 탁아소는 점차 확대됐다.

그러나 남녀평등을 위한 제도적 조치는 북한 주민의 자체적인 성과로 보기 힘들다. 이는 토지개혁이 진행된 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토지개혁은 소련이 단독정권을 세우기 위해 친소세력을 지원하는 방편으로 진행됐다. 토지개혁 3개월 전인 1945년 12월 소련군 총정치사령관 쉬킨 중장은 비밀보고서에서 '북한 인민 민주주의 운동을 방해하는 지주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토지개혁이 필요하다'[26]고 주장했다. 토지개혁 이외의 일련의 남녀평등 조치들

---

24) 리경해,『녀성문제해결경험』(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90), pp.60

25) 1947년 1월 24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의 봉건유습 잔재를 퇴치하는 법령' 공포한다.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서울: 한울, 1991), pp.77

26) "구소 북 장악음모 '결정적 자료' 쉬킨 중장 비밀보고서 내용·의미,"『한국일보』, 1995년 8월 14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199508140048534504 (2024년 4월 6일 검색)

역시 소련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련의 남녀평등 조치들은 북한 주민의 자체적인 성과가 아니었던 까닭에, 실제 생활에서 여성은 여전히 가부장적 질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건국 시기 남녀평등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김일성이 권력을 독점해 나가면서 힘을 잃기 시작했다. 이어 여성에 대한 억압적 담론이 등장·확대해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유지되는 형태가 만들어졌다. 국가 가부장제가 형성된 것이다.

김일성은 1960년대 초부터 중공업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폈다. 중공업에는 주로 남성이, 경공업·지방산업에는 주로 여성이 일했다. 중공업에 노동력과 자재·배급이 우선 공급되면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낮아졌다.

1961년 여성에게 어머니로서 임무가 부여됐다. 이 시기 추진된 '사상·기술·문화' 3대 혁명 중 사상혁명과 관련해, 자녀를 공산주의적으로 교육하는 역할이 여성에게 부여된 것이다. 아내, 며느리라는 전통적 역할도 강조됐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대가정'론이 나타났다. 1962년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킬 것"[27]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공산주의적 대가정', '붉은 대가정', '혁명적 대가정'으로 변주되다가 1990년대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굳혀졌다.

1967년 갑산파 사건으로 김일성 유일 체제가 공고해진 뒤에는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이 여성혁명화·가정혁명화를 이룬 모범적 여성으로 교육됐다. 김정일 후계체제가 본격화된 1970년대에는 김일성의 아내이자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도 여성들의 표상이 됐다.

1980년대에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등장했다. 이는 "수령을 중심"으로 "당의 령도 하"에서 "인민 대중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1991년 4월 가족법에 명기된 '사회주의 대가정'론과 함께 북한을 지탱하는 이데올로기가 됐다.

이로써 북한 사회는 하나의 가정이 됐다. '수령(아버지) - 당(어머니) -

27) "새해의 인사를 드린다! 김일성 수상의 신년사," 『로동신문』, 1962년 1월 1일

인민(자녀)'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북한에서 수령과 당은 사실상 같은 지배집단이므로, 수령은 인민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된다. 어버이 담론을 통해 수령의 권력을 윤리적으로 정당화시킨 것이다. 가부장적 문화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봉건적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28] 부모인 수령과 당은 '자애로움'과 같은 사랑을 베풀고, 자녀인 주민은 '충효'로 보답해야 하는 관계가 생겼다. 이로써 건국 초기 해체하려고 노력했던 봉건적 가부장제는 복원·강화됐다.

2. 국가 가부장제 아래 여성 지위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대표되는 국가 가부장제에서 여성의 지위는 열악해졌다. 여성에게는 사회의 혁명을 위해 가정의 혁명을 책임지라는 의무가 주어졌다. 여성은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수령의 유일 지배가 가부장제 논리로 정당화되면서, 가부장제를 거스르는 여성의 행동은 수령에게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세대주'인 남성을 통한 국가의 자원 공급은 남성의 권력을 공식화했다.[29] 주택과 식량·부식물·생필품 공급은 '세대' 단위로 이뤄졌다. 세대의 책임자인 세대주는 남편이었고, 여성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성과 자녀는 세대주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배급을 받는다. 주택 공급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혼을 하면 여성은 남편과 살던 집에서 살 수 없고, 배급도 받기 어려워진다. 자연히 여성의 지위는 내려갔다.

세대주인 남성은 가정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남성이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아내에 대한 폭력은 '부부간의

28) 이승목, "북한 집단주의 형성 및 변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106

29) 조영주, "북한 여성의 실천과 젠더레짐의 동학,"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p.53~55

싸움', 자녀에 대한 폭력은 '교육'을 인식됐다.[30] 남성의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외부의 개입은 없었다. 남성은 폭력으로 권력을 수월히 유지할 수 있었다.

여성에겐 가정 내에서 전통적인 어머니·아내·며느리 역할이 주어졌다. 남편이 사회 활동을 잘하도록 내조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며 늙은 부모를 돌봐주는 일 등을 여성이 맡게 된 것이다. 여기엔 희생, 봉사, 헌신과 같은 덕목이 요구됐다.

여성은 가정뿐 아니라 사회 활동도 성공적으로 병행해야 했다. 사회 활동은 봉건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권리이자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의무였다. 그러나 남성이 일하는 중공업에 비해, 여성이 일하는 경공업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야 하는 필수품의 공급이 어려워질 때도, 여성들은 가내작업반을 조직해 집에서 필수품을 생산해야 했다.

기업소·공장을 경영하는 지배인은 남성이 맡았다. 여성이 관리자가 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기업소·공장에서 활동으로 여성이 신분을 상승하거나 자아를 실현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반면 기업소·공장에서 '100일 전투', '200일 전투' 등의 속도전과 노력 동원이 펼쳐질 때마다 여성은 고된 노동을 담당해야 했다. 국가의 지시에 잘 따르는 여성을 '노력 영웅', '여성 영웅'으로 치켜세웠지만, 이는 여성에게 헌신적인 노동력을 요구하는 장치에 가까웠다.

기업소·공장 노동뿐 아니라 인민반 등 각종 사회단체가 요구하는 행사에도 나가야 했다. 정치계몽 활동에 참여하거나 환경보호, 복지와 교육에 관한 활동까지 여성이 맡은 것이다. 여기엔 '개인은 집단을 위해, 집단은 개인을 위해'라는 집단주의적 사고가 바탕이 됐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응당 배척의 대상이었다.

정리하면 여성은 제도적으로 남녀평등을 보장받지만, 현실에서는 남성에게 종속된 위치에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다. 기업

30) 조영주, pp.139

소·공장은 물론 인민반의 노력 동원도 피할 수 없었다. 여성은 가정 활동과 사회 활동에서 '이중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제2절 시장화 이후 여성

1. 시장화와 사회 변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 불린 경제 위기로 계획 경제 시스템이 붕괴했다. 원자재·에너지·식량·배급 등 국가의 공급은 끊어졌다. 1997년에는 전체 인구의 6% 정도만 식량 공급이 가능했다.[31]주민들은 생존의 방법을 찾아야 했다. 비합법적으로 생겨난 장마당이 비빌 언덕이 됐다. 개인 밀무역과 무역 기관들의 불법적 무역 활동을 통해 유입된 재화들이 장마당에서 거래됐다. 시장이 국가를 대신해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켜 준 것이다. 곳곳에 서 생겨난 장마당은 고난의 행군 이전에 소규모로 있었던 농민시장·상설시장과는 규모와 국가의 통제 정도에서 크게 달랐다.

장마당에는 주로 여성들이 활동했다. 남성들은 공식 직장의 통제로 인해 장마당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반드시 직장에 적을 두지 않아도 되는 기혼여성은 장마당으로 나왔다. 장마당 초기 여성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사를 했다. 큰 수익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국가의 계획 경제 조직은 이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다.[32]

여성의 장마당 활동은 확대됐다. 초기엔 기업소·공장에서 얻은 재료로 식품을 만들어 팔았다. 이후 주민들은 식품뿐 아니라 의류와 화학제품을 만들어 팔았다.[33] 장사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등짐 장사', '되거리 장사(지역간 물

31) 임순희 외,『북한인권백서 2006』(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 151~161

32) 헤이즐 스미스, 김재오 옮김, 『장마당과 선군정치: 미지의 나라 북한이라는 신화에 도전한다』, (파주: 창작과 비평사), 2017, pp. 237~239

33)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2009, pp.105~107

품 유통)', '달리기 장사·차판 장사(철도·차량을 이용한 도매)' 등이 등장했다. 이후 앉아서 장사하는 '매대 장사'가 정착됐다.

북한은 2000년 10월 고난의 행군의 종료를 선언했지만, 경제난은 계속됐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계획 경제에 '경쟁' 요소를 도입한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 이후 장마당은 공식적인 종합시장으로 합법화됐다. 2005년 이후 북한은 시장을 억압하기 시작해, 2009년 12월 몰수형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화폐개혁으로 북한의 화폐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금융경제에서 달러화(dollarization)가 촉진됐다. 시장화를 억누르려던 국가의 시도가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집권한 김정은은 2014년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를 시행했다. 2002년 7·1 조치보다 더 큰 폭으로 기업 경영에 자율성을 제공하고,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허용한 것이다.

2020년대 현재 북한에는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가 공존한다. 계획 경제에서 국가는 국가소유인 기업소·공장에 생산요소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자 시장 경제와 공존을 택했다. 2020년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2016년~2020년 북한에서 시장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는 37.6%였다. 계획 경제 활동과 시장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인구는 8.6%였다.[34]

노동자들은 기업소·공장 대신 시장에 나간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더 벌이가 낫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번 돈의 일부를 기업소·공장 관리인에게 뇌물로 준다. 기업소·공장은 이 돈으로 생산요소를 사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생산량을 맞춘다. 기업소·공장의 지배인·관리인은 시장의 '돈주'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업소·공장을 운영한다.[35] 아예 돈주들이 기업소·공장에 직접 투자하기도 한다.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가 공존하는 이유는, 계획 경제만으로 인민의 수요

34) 통일부, "북한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에 제출한 자료, 2021년 10월, https://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78013 (2024년 4월 20일 검색)

35) 백명숙, "시장화 이후 북한도시에서 공식 및 비공식 노동의 상호작용 패턴에 관한 연구: 평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7권 제2호, 2023, pp.17

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역으로 보면, 국가는 시장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6] 시장을 주도하는 돈주들은 당 간부 등 정치적 지배 권력의 비호를 받는다.

그렇다고 국가는 시장 경제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계획 경제가 시장 경제에 의해 침식되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통제하는 계획 경제를 포기할 경우, 국가의 정당성이 흔들린다. 이 때문에 계획 경제 영역에서 국가는 통제의 끈을 놓지 않는다. 지방 기업소·공장의 식량과 배급은 끊더라도, 중앙 직할 연합기업소에는 끊지 않는다. 또 출근을 하지 않는 노동자를 출근시키기 위해 관리자를 압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37]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가 적절한 수준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조율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 활동을 주로 여성이 맡으면서, '남성 = 공식 노동, 여성 = 비공식 노동' 이라는 성별 분업체계가 자리잡혔다.[38] 여성이 남성을 대신해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게 됐다. 남성이 기업소·공장에서 번 수입보다, 여성이 시장 활동에서 번 수입이 더 많기 때문이다. 기혼여성뿐 아니라 일부 남성과 미혼여성도 시장 활동을 하기도 한다. 남성은 뇌물을 주는 방법으로, 미혼 여성은 뇌물을 주거나 결혼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식 직장에서 벗어나 시장 활동에 뛰어든다.

이 같은 변화는 국가의 주민 장악력을 약화시켰다. 주민들에겐 국가가 주문하는 집단주의적 가치보다 시장을 통한 사익 추구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미용실, 사진관,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을 설립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었다. 자녀를 김일성 대학이나 김책공대 등 유명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과외를 시키는 일이 흔해졌다.[39] 국가의 말단 조직인 인민반의 감시

---

36) 윤철기, "북한 시장화의 정치학:김정은 시대, 경제적 변화의 정치적 함의,"『한국과 국제정치』제38권 제2호, 2022, pp.145~146

37) 김화순, "생존의 정치 Ⅱ:사회주의책임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현대북한연구』23권1호, pp.88~91

38) 조정아, pp.40~41

기능도 약해졌다. 인민반 간부들은 여성들의 시장 활동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40] 인민반에서 하는 사상교육도 자연히 약해졌다.

2. 시장화와 여성 지위

여성이 시장 활동을 통해 경제적 권력을 쥐게 되면서, 가정 내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기존보다 높아졌다. 반대로 가정 내에서 기업소·공장에 다니는 남성의 목소리는 약해졌다. '여성의 시장 활동이 가정 내 여성의 위상에 미친 영향'을 탈북민에게 물은 통일부 조사에서, 2000년 탈북한 여성 10.6%는 '남편보다 위상이 높아졌다'고 답했다.[41] 반면 2016년~2020년 탈북한 여성 17.2%가 '남편보다 위상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남편과 위상이 동등해졌다'고 답한 여성은 같은 기간 10.8%에서 12.8%로 늘었다. '위상이 다소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답한 여성은 같은 기간 33.5%에서 45.9%로 늘었다.

가정 내 경제력이 높아진 여성은, 과거처럼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남편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아 '멍멍개', '낮전등'이라 불렀다.[42] 남편들이 청소·육아·밥 짓기 등의 집안일을 분담하는 경우도 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남편이 석탄을 갈아주거나 가마를 씻어주는 것을 대단한 일로 여겼는데, 이 정도 가사 분담은 점차 흔한 일이 됐다.[43]

늦게 결혼하는 여성이 많아졌다. '가능한 늦게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위 통일부 조사에서 2011년 이전 탈북한 응답자 중 '25세 이하에 결혼했다'는 비율은 66.8%였던 반면 2012년 이후에는 51.3%로 줄었다.[44] '26

39) 헤이즐 스미스, pp.240

40) 헤이즐 스미스, pp.249

41) 통일부·북한대학원대학교·글로벌리서치,『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 2023, pp.220

42) 통일부·북한대학원대학교·글로벌리서치, pp.221

43) 이미경·구수미 "경제위기 이후 북한도시여성의 삶과 의식: 청진, 신의주, 혜산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2호, 2004, pp,174~176

44) 통일부·북한대학원대학교·글로벌리서치, pp.214

세~29세에 결혼했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30%에서 34.5%로 늘었다.

만혼이 늘면서, 출산율은 감소했다. 유엔(UN) 추계치로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시장화 이전 1980년대 2.6명이었지만, 시장화 이후 2010년대는 1.9명으로 줄었다.[45]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출산을 장려해왔지만[46],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혼은 늘었다. 폭력적이거나 무능력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여성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위 통일부 조사에서, 2000년 이전 탈북한 이들 중 이혼한 비율은 74.5%인 반면 2016년~2020년에 탈북한 이들 중 이혼한 비율은 81.3%였다.[47] 북한은 이혼을 자본주의 국가의 병폐로 본다. 국가의 세포인 가정이 깨지면, 국가의 체제가 흔들린다고 본다. 북한에선 재판 이혼만 가능하며, 이혼한 사람에겐 당원권을 박탈하거나 자녀의 대학입학에 불이익을 준다. 그럼에도 이혼율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성의 지위가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성들의 집단주의적 사고가 과거보다 옅어졌다. 가부장적 국가는 주민에게 주택과 식량·생필품 등 물질적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통제하는 데 정당성을 얻는다. 국가가 제공하는 물질이 줄어들면서 자연히 국가에 대한 주민의 충성도는 약화됐다. 여성들은 개인주의적 사고를 키워나감과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상대와 '낭만적 연애'를 꿈꾸게 됐다.[48] 또 보수적인 성 문화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한다. 외모 가꾸기와 소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한다.

여성들의 사적 이익 중시, 만혼, 출산율 저하, 이혼 증가는 모두 북한 정권이 기존에 막으려고 했던 일들이다. 이는 여성 억압을 바탕으로 유일 지배

---

45) 홍제환·김석진 등,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통일연구원』,2020, pp,110, 유엔 '2019 세계인구 전망' 재인용

46) 유성애, "북한의 인구 재생산 담론 변화 연구:여성의 임신·출산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pp.22

47) 통일부·북한대학원대학교·글로벌리서치, pp.217

48) 조정아·이지순·이희영,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통일연구원』,2019, pp.257~258

체제를 유지해왔던 가부장적 국가에게 사회의 안정을 흔드는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국가는 여성의 변화를 방치할 수만은 없는 위치에 서 있다.

제3장 시장화 이후 여성 관련 공식 담론

제1절 『로동신문』과 『조선녀성』

전국어머니대회(이하 '어머니대회')는 국가가 여성을 '어머니'로 호명하는 행사다.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의무와 역할을 부여한다. 어머니대회는 북한이 대내·외 위기 상황에 놓이거나 국면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열렸다.

1961년 11월 열린 제1차 어머니대회는 사회주의 건설, 즉 경제 계획 달성을 위한 성격이 컸다. 1961년 9월 당 대회(일명 '승리자 대회')에서 '7개년 인민경제계획'이 공포됐다. 3개월 뒤 열린 1차 어머니대회에서 당 사상 사업 분야의 하나로 어머니의 교양자적 역할을 강조했다.[49] 이를 위해 '공산주의 어머니'가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제시됐다.

1998년 9월 열린 제2차 어머니대회는 '고난의 행군' 이후 사회를 안정시키려는 성격이 컸다. 대회에서 여맹위원장은 김정일의 담화내용과 관련해 "가장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힘'"[50]이라고 말했다. '혁명적 건설자'로서 어머니상이 제시됐다. 아이를 많이 낳고, 어린이들을 충성둥이·효자둥이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과 경공업 등에서 여성 영웅이 되길 요구했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부모 없는 어린이와 자식 없는 늙은이를 돌보는 일도 주문했다.[51]

---

49) 김창순, "북한의 전국어머니대회에 관한 연구: 어머니의 역할변화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16

50) "조선의 어머니들을 자랑한다,"『로동신문』, 1998년 9월 28일

51)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천연옥 위원장의 보고,"『로동신문』, 1998년 9월 29일

2005년 11월 열린 제3차 어머니대회는 당시 북핵 갈등 이후 내부 결속을 다지는 성격이 컸다. 대회가 열리기 전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와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탈퇴하고 6자회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9·19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은 바로 폐기됐고, 북한은 '선군혁명총진군'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항전의 뜻을 비쳤다. 2차 대회에서 언급된 충성둥이·효자둥이는 3차 대회에서 '총폭탄용사'[52]로 변모됐다.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성격이 더해진 것이다. 여성은 발전소와 공장, 목장과 양어장, 토지정리와 살림집 건설 등 모든 분야에 진출하라고 요구받았다.

제1차 어머니대회 이후 37년이 지난 뒤인 1998년 제2차 대회, 다시 10년 뒤 제3차 대회가 열린 것은 시장화로 인한 여성 변화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이 시기는 여성의 시장 활동 없이는 가정의 생계 유지가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여성의 시장 활동이 날로 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과 전통적인 여성의 임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가부장적 국가는 이 시기 여성에 대한 통제를 이어가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시대가 출범한 2012년 11월 제4차 어머니대회를 열어 체제의 안정을 도모했다. 2011년 12월 사망한 김정일에 이어 정권을 잡은 김정은은 이듬해 5월에 11월 16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했다. 11월 16일을 택한 것은 김일성이 1961년 11월 16일 제1차 어머니대회에서 연설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53] 김정은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여성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2023년 12월 열린 제5차 어머니대회는 당시 고조된 사회 불안정을 잠재우기 위한 성격이 컸다. 2016년을 정점으로 한 대북제재, 2018년 미국과 협상 실패, 2019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한류의 유입으로 인한 비사회적 현상 증가 등은 정권을 뒤흔드는 요인이었다. 날로 늘어나는 여성의 만혼과

52) "혁명의 수뇌부를 충성으로 높이 받드는 미더운 여성 혁명가들: 선군시대의 어머니들을 자랑한다."『로동신문』, 2005년 11월 22일

53) 김일성은 1961년 11월 16일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이혼, 줄어가는 출산율도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과제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전국어머니대회】 제1~5차 전국어머니대회 현황[54]

시기	1차 대회 1961.11.16.~18	2차 대회 1998.9.28.~29	3차 대회 2005.11.22	4차 대회 2012.11.15.~18	5차 대회 2023.12.3.~4
배경	·김일성 체제 수립 ·7개년경제계획	·고난의 행군 ·선군정치	·북핵 갈등	·김정은 정권 출범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
강조점	·공산주의 어머니 ·사회주의 건설자	·다출산 ·충성둥이 양육 ·군(軍) 중시	·다출산 ·수령결사옹위 ·고아/병사의 어머니	·다출산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지성 소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충실	·다출산 ·가정화합 강조 ·사회주의 기풍 교육
여성역할	·노동 ·양육	·출산 ·양육	·다출산 ·양육 ·돌봄	·다출산 ·양육 ·돌봄	·다출산 ·양육 ·돌봄 ·비사회주의 타파

『로동신문』에 게재된 제4차 어머니대회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축하연설[55]과 제5차 어머니대회 김정은의 개회사[56]와 폐회사[57]를 살핀다. 제4·5차 대회 당시 노동신문 사설[58][59]도 함께 살펴본다.

『로동신문』은 조선노동당 기관지로, 당의 입장을 대변한다. 사설은 지

54) 표3:김창순(2006: 56)의 표에 안지영(2015: 55), 유성애(2023: 66)의 내용을 기반으로 저자가 재구성

55) 김기남 동지의 축하연설, 『로동신문』, 2012년 11월 16일, 김기남 비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해당 대회에서 연설을 했다. 김정은의 연설은 없었다.

56)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개회사," 『로동신문』, 2023년 12월 4일

5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강령적인 연설," 『로동신문』, 2023년 12월 5일

58) "사설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 『로동신문』, 2012년 11월 15일

59) "사설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 『로동신문』, 2023년 12월 3일

도자의 현지 지도에 대한 보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면에 싣는다. 3·8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날·이하 '3·8부녀절')은 일종의 여성 명절이다. 매년 3·8부녀절이 되면 최고인민위원회와 여맹위원회 간부 등이 모여 기념회를 열고, 각 기업소·공장·가정에서 여성들에게 꽃을 선물한다.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24년『로동신문』3·8부녀절 사설 제목은 다음과 같다.

【표4. 3·8부녀절】 김정은 시대 3·8부녀절 『로동신문』사설 제목

시 기	사설 제목
2012년	녀성들은 강성국가건설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차게 밀고나가자
2013년	녀성들은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
2014년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힘있게 떨치자
2015년	녀성들은 당의 호소따라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2016년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서 조선녀성들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자
2017년	만리마시대를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녀성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2018년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조선녀성들의 혁명적기개를 더욱 힘있게 떨치자
2019년	조선녀성들은 사랑과 헌신으로 사회주의 조국을 받들어가는 참된 애국자들이다
2020년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조선녀성들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자
2021년	녀성들은 애국헌신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여 오늘의 총진군에서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자

2022년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풍모를 남김없이 과시하자
2023년	조선녀성들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2024년	우리 녀성들은 강의한 정신력과 헌신적노력으로 나라의 부흥발전을 떠밀어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

3·8부녀절 사설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024년 약간의 변동이 생긴 것을 제외하면 매년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다.

【표5. 3·8부녀절】 3·8부녀절 『로동신문』 사설의 논리 구조

Ⓐ 3·8부녀절을 맞이해 조선 여성들은 긍지를 갖고 살고 있다. Ⓑ 여성존중 사회가 실현된 이유는 위대한 지도자의 령도력 덕분이다. Ⓒ 이 때문에 유일적 령도체계를 철저히 지켜, 지도자를 높여야 한다. Ⓓ 당이 부여한 과제(선군정치, 만리마 속도, 농업과 경공업 등에 헌신 등)를 이행해야 한다. Ⓔ 가정의 주부, 며느리, 안해(아내)와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 녀맹조직의 사상교양활동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매해 사설에서 Ⓐ, Ⓑ, Ⓒ의 내용이 5분의 3가량을 차지했다. 역시 내용은 매년 비슷했다. Ⓔ, Ⓕ역시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한 분량을 차지했다. 다만, Ⓓ당이 부여한 과제는 시기에 따라 '선군정치', '만리마 속도', '농업과 경공업 등에 헌신' 등으로 바뀌었다.

대동소이한 내용임에도 미세한 차이점을 분석해본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비교적 국가와 당에 대한 충성이 강조됐다. 반면 2017년 이후부터는 국가와 당에 대한 충성과 함께 여성의 사회 진출도 강조됐다. 김정은이 정권

초기에는 여성의 충성심을 얻어내는 데 집중하다가, 정권 안정 이후에는 여성 노동력 확보에 힘쓴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 옷차림이 고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매해 한 문장꼴로 언급됐다. 그러나 2013년과 2014년에는 한 문장도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 2023년에는 두 문장이 언급됐고, 2024년에는 한 문장이었지만 문장이 길어졌다. 여성의 자유로운 행동이 늘었다는 의미로, 또는 여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조선녀성』은 여성동맹의 기관지다. 국가가 부여한 과업을 수행하는 여성을 길러내는 데 발행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잡지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숙 등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 충실성 교양·계급교양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실린다. 여맹조직원의 모범활동을 선전하는 글도 함께 실린다.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인 2012년부터 2022년[60]까지 『조선녀성』을 살핀다.

【표2. 분석 기준】를 중심으로 『로동신문』의 제4·5차 어머니대회, 3·8부녀절에 대한 보도와 『조선녀성』에서 나타난 국가의 태도를 주제별로 묶어 논의한다.

1. 전통적 여성 역할 이행을 위한 교육

가. 출산과 양육

가부장적 국가는 “약물이나 기구를 리용”한 여성들의 임신 중지가 널리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 중지를 하는 여성을 비난하지는 않았다. 국가는 다출산이 “혁명의 대”를 잇는 국가의 중요 사업이라고 강요하면서 여성의 “건강에 좋다”고 교육했다. 또 “자식을 9명, 10명 낳은 어머

60) 2024년 4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따르면『조선녀성』은 2022년 12호 이후 남한에 유입되지 않았다.

니”를 국가의 영웅으로 치켜세워, 모든 여성이 영웅이 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다출산을 하지 않는 사회 구조적인 이유는 외면했다. 여성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논리를 폈다. 여성의 ‘잘못된 생각’ 탓으로 돌린 것이다. 또 자녀들이 “일당백 용사”와 “세계적인 인재”로 자라나는 양육의 책임은 여성에게만 부여했다.

· “**녀성들이 아들딸을 많이 낳아 잘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는 중요한 사업”(『조선녀성』)[61]

· “녀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이 건강에 좋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녀성들속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건강에 좋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약물이나 기구를 리용하고 있다**.”(『조선녀성』)[62]

· “녀성들의 임신, 해산, 젖먹이기는 일생에서 필연적인 생리적 과정이다. (중략) 그런데 일부 녀성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조선녀성』)[63]

· “어머니는 단순히 자식들을 먹여주고 자래워주는 보육자가 아니라 앞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첫째가는 교양자**”(『조선녀성』) [64]

· “모든 사람들의 생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시작되고 인간적인 모든 품격이 **어머니의 손길 아래서 먼저 형성**”(4차 어머니대회 김기남 연설)

· “**아들딸들을 더 많이 낳아 훌륭히 키워** 총을 잡으면 일당백 용사가 되고 붓을 쥐면 세계적인 인재가 되는”(4차 어머니대회 김기남 연설)

· “대회 참가자들속에는 **자식을 9명, 10명 낳은 어머니**” (4차 어머니

61) “녀성들이 아들딸을 많이 낳아 잘 키우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조선녀성』2017년 11호, pp.16

62) “녀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키우면,”『조선녀성』2021년 2호, pp.50

63) “녀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이 왜 좋은가,”『조선녀성』2019년 9호, pp.50

64) “조국의 앞날을 떼메고나갈 후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녀성들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조선녀성』2017년 10호, pp.14

대회 노동신문 사설)

· “가정교양과 학교교양, 사회교양중에서도 **가정교양이 첫자리**를 차지하며 여기서도 어머니의 영향이 특별히 중요”(5차 어머니대회 김정은 연설)

· “아들딸들을 **조국과 혁명의 기둥감으로 키우는** 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숭고한 애국사업으로 여기는 어머니들의 **고결한 정신세계**” (5차 어머니대회 노동신문 사설)

·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올바로 교양하는 것이 한가정의 대를 잇는 문제로만이 아니라 혁명의 장래를 걸머질 계승자들을 키우는 **더 없이 숭고한 혁명사업**”(5차 어머니대회 노동신문 사설)

· “**가정을 돌보고 자식을 낳아 키우고** 집단의 화목을 도모”, “아들딸들을 많이 낳아”(2021년·2020년·2022년·2016년·2014년·2013년 3·8부녀절 노동신문 사설)

나. 가족구성원과 관계

가부장적 국가는 가정 내 위계질서를 ‘남편 - 시어머니 - 장남의 아내 - 차남의 아내’ 순이라고 교육했다. 가정 운영의 가장 큰 짐은 장남의 아내에게 짊어줬다. 대신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의 집안일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남의 아내에게는 장남의 아내를 “안주인”으로 모시도록 교육했다.

국가는 집안일을 분담하지 않고,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은 남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에게 행동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런 남성에게 “량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하라고 여성에게 교육했다. 남편의 연구사업을 돕는 것은 물론 “한 가지 음식이라도 남편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고 교육했다. 세대주인 남편이 “높은 정신세계에서 일하도록 받들어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여성에게 “주부, 며느리, 아내, 어머니”로서 역할을 교육하면서도, 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여성에게 처벌 위협을 하지는 않았다.

· “**남편의 울적한 기분을 명랑하게 전환시켜주고** 격동적인 상태의 팽팽한 기분도 느슨하게 늦추어주는데 안해의 매력이 있다. 부부간에 랭랭한 분위기가 생겼을 때 남편이 먼저 안해를 풀어줄 것을 바라지 말고 **안해가 먼저 자기의 언짢은 기분을 누르고 너그러운 리해력을 가지고 웃으며** 남편을 대할 때”(『조선녀성』)[65]

· “안해들은 남편들이 선군혁명의 길에서 최대의 정열을 발휘할수 있게, **세대주로서의 책임을 잘할수 있게 보다 높은 정신세계에서 일하도록 받들어주어야**”(『조선녀성』)[66]

· “인사말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해야 한다. 아침에는 《어서 일어나세요, 식사가 다 됐어요.》, 《밤에 머리가 아프시다더니 좀 나아요?》 등으로 말할 수 있으며 (중략) **남편의 성미를 잘 알고 그에 맞게 례절을 지켜야** 한다. (중략) 안해들은 어떻게 하면 **한가지 음식이라도 남편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 대접”(『조선녀성』)[67]

· “남편은 그 모든 것을 응당 여자가 할 일로 여기면서 아예 **자녀교육에 낯을 돌리지 않을수 있다**. 이럴 때면 《피곤할텐데 미안하지만 아이들 공부이야기나 좀할가요?》라고 **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그러면 무뚝뚝한 남편이라도 대화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조선녀성』)[68]

· “**남편의 연구사업과 관련한** 텔레비죤편집물들과 과학기술서적들을 보며 차고가 될만한 것들을 찾아두었다가 남편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필요한 과학기술도서들을 번역하여주기도 하였다.”(『조선녀성』)[69]

· “큰 선에서 탈선이 없다면 **시어머니의 가정생활 요구를 귀담아듣고 보면서 맞추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중략) 리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65) “안해의 다심하고 너그러운 리해력은,”『조선녀성』2012년 8호, pp.43
66) “안해의 다심하고 너그러운 리해력은,”『조선녀성』2017년 3호, pp.43
67) “안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조선녀성』2022년 7호, pp.49
68) “자녀교양에 무관심한 남편의 태도를 바꾸자면,”『조선녀성』2018년 9호, pp.54
69) “과학자 가정:광명동초급녀맹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동무,”『조선녀성』2018년 5호, pp.42

들지 않는 요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내쏘거나 마구 **시어머니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에 어긋나**는 참을 수 없는 행동"(『조선녀성』) 70)

· "저는 이처럼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힘들세라, 지칠세라** 때로는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짓고 집안의 뒷거둠질도 솔선해주며 손녀애도 도맡아 돌보아**줍니다. 이렇게 하니 우리집에 푹 정이 든 며느리도 저를 어머니처럼 따르고"(『조선녀성』)71)

· "**형님은** 시집을 위하여 궂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으며 시부모와 남편을 공대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도 시동생, 시누이들을 위해 여러모로 왼심을 쓰는 가정의 주부이며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데서 **가장 큰 위치에 있는 안주인**"(『조선녀성』)72)

· **【그림1. 가화만사성】**(련속그림이야기) 가화만사성(『조선녀성』)73)



· "**다심한 어머니, 고마운 안해, 살뜰한 며느리**가 되기 위하여 애써야"(5차 어머니대회 김정은 연설)

---

70) "사회주의 도덕과 생활, 시어머니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옳은 도리,"『조선녀성』2021년 4호, pp.48

71) "(연단)며느리도 귀중한 자식입니다,"『조선녀성』2012년 2호, pp.48

72) "형님의 수고를 헤아릴줄 알아야 한다,"『조선녀성』2012년 10호, pp.45

73) "(련속그림이야기)가화만사성,"『조선녀성』2013년 4호, pp.42

· “가정주부로서, 안해로서, 며느리로서 **사회와 가정앞에 지닌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4차·5차 어머니대회 노동신문 사설)

· “**가정의 주부로서, 며느리로서, 안해와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항상 자각”(2023년·2022년·2021년·2019년·2015년·2014년·2012년 3·8부녀절 노동신문 사설)

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어머니

가부장적 국가는 “전쟁로병”, “부모를 잃은 아이”를 돌보는 국가 복지의 역할을 여성의 몫이라고 교육했다. 그러나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노인과 고아를 돌보지 않은 여성을 질책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어머니로서 사회 복지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마땅한 본분이자 의리”라고 국가는 교육했다. 또 이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은 “고결한 풍모”를 가졌다고 치켜세웠다. 반대로 해석하면 “조국의 무궁번영”을 위해 “깡그리 바쳐가”지 않은 여성은 의리도 모르는 고결치 못한 여성이 된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어머니로서 맡은 사회 복지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도덕적 흠결이 있다고 교육함으로써, 여성의 노동력을 사회 복지에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의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

· “원산시 덕성동 제12인민반 조희련 동무는 이미 **부모잃은 아이를 훌륭히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녀성이다. 지난해 12월 조희련 동무는 또다시 두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조선녀성』)[74]

· “**전쟁로병들을 잘 도와주는 것**은 그들이 피로써 지켜낸 조국땅에서 사는 우리 새세대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본분이고 의리**가 아니겠소.”(『조선녀성

74) “만발하라, 인간사랑의 화원이여”, 『조선녀성』 2012년 6호, pp.30

』)[75]

· “애지중지 키운 **8남매, 6남매** 모두를 조국보위초소에 세우고 **남편들과 한전호에 서서 조국의 천리방선을 지키는** 어머니들”(4차 어머니대회 김기남 연설)

· “선군시대를 빛내여나가는 《**병사들의 어머니**》가 되고 이 나라의 모든 아들딸들을 다 자기 살붙이처럼 품어안아주는 《우리 어머니》,《**사회주의어머니**》가 되도록” (4차 어머니대회 김기남 연설)

· “**병사들의 친누이, 친어머니가 되어준 군관안해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서슴없이 맡아 안은 평범한 녀성들, **난치병에 걸린 학생**을 일으켜세우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어다닌 녀성교원” (4차 어머니대회 노동신문 사설)

·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당을 믿고 **조국의 무궁번영만을 위한 한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쳐가는** 어머니들의 용기와 헌신”(5차 어머니대회 김정은 연설)

· **【그림2. 사회주의 대가정】** 처녀어머니(『조선녀성』)[76]


온 나라가 다 아는 《처녀어머니》

라. 수령에 충성하는 여성

사회주의 대가정의 어머니로서 역할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연관됐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어버이”가 최고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자녀처럼, 여성은 최고지도자를 “충직하게 받들어 모셔야”한다고 국

75) “전쟁로병의 친혈육, 참된 동지가 되어: 평산군 남천약초농장 초급녀맹위원회 8초급단체 위원장 리광녀동무,”『조선녀성』2015년 4호, pp.44

76) “온 나라가 다 아는 <처녀어머니>,”『조선녀성』2016년 3호 pp.56 다음의 후면표지

가는 교육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수령에 대한 결사옹위적 태도를 취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 처벌을 위협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친어버이영상은 조선의 **어머니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4차 어머니대회 김기남 연설)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일편단심**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4차 어머니대회 노동신문 사설)

· “모든 어머니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어 조국도 가정도 있고 자자손손 복락할 휘황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총비서동지만을 따르는 충성의 일편단심**을 변함없이 간직해야 한다”(5차 어머니대회 노동신문 사설)

· “**총비서동지를 사회주의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2024년), “녀성들은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사회주의 대가정**의 화목과 단합을 꽃피우고”(2019년·2013년), “부모잃은 아이들을 위해 처녀어머니가 되는 것과 같은 **고결한 풍모**는 사랑과 정으로 **사회주의 대가정**을 가꾸는”(2017년·2015년 3·8부녀절 노동신문 사설)

·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 모셔야** 조국도 빛나고”(2018년), “**주체적 녀성운동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2017년), “우리 녀성들은 일편단심 당과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충정의 인간들”(2015년),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2014년 3·8부녀절 노동신문 사설)

마. 노동하는 여성

가부장적 국가는 공식 영역의 노동에 진출하는 것이 “여성의 본분”이라고 교육했다. 특히 2016년 김정은이 가두여성(전업 주부)의 사회 진출(공식 영

역의 노동)을 지시[77]한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M자형 곡선'을 그린다. 취업 이후 결혼과 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가부장적 국가(북한 정권)는 가두여성의 사회 진출의 필요성이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서임을 숨기지 않았다. 인민 경제 부문에서 제기되는 "로력문제, 기술자, 기능공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서라고 밝히면서도, 국가는 다른 명분을 끌어왔다. "자식들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라거나, "조국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또는 "벅찬 투쟁이 벌어지는 오늘을 체험"하기 위해서라고 교육했다.

국가가 가두여성에게 공식 영역의 노동으로 진출하라고 교육하는 이유는, 실제 가두여성이 기업소·공장 대신 벌이가 나은 시장 활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국가가 여성의 노동력이 시장으로 빠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일 수 있다.

· "**경공업과 농업,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비롯하여 어느 전선, 어느 단위에서**나 녀성들이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자기 몫을 다해나갈 때" (4차 어머니대회 노동신문 사설)

· "녀맹조직들은 가두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야 합니다.(중략) 녀맹조직들은 **가두녀성들과 사업을 잘하여 일할 나이의 녀성들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투장들에 적극 진출**하여 한몫하도록 하여야"(『조선녀성』)[78]

· "녀맹원 모두가 혁신자, 만리마 속도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일할 나이에 있는 **가두녀성들을 사회에 적극 진출시키면 인민경제**

77)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서 조선녀성들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자,"『로동신문』2016년 3월 8일

78)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따라 녀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조선녀성』2016년 12호, pp.6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로력문제, 기술자, 기능공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조선녀성』) [79]

· "**사회에 적극 진출하는 것이 우리 시대 녀성들의 본분**으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녀성들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조선녀성』) [80]

· "사회의 한 세포인 가정이 혁명화되자면 녀성들부터 혁명화되어야 한다.(중략) 그런데 **녀성들이 집안에 들어앉아 사회와 동떨어진 생활을 하게 되면 벅찬 투쟁이 벌어지는 오늘의 현실을 체험할수 없다.**"(『조선녀성』)[81]

· "어머니들은 한가정의 울타리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공장과 일터에서 성실한 애국의 땀을 바치고 혁신을 일으키는 것으로 **자식들 앞에 떳떳한** 사회주의근로자가 되어야"(5차 어머니대회 김정은 연설)

· "**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곧 자기를 키워준 당과 조국의 **은덕에 보답하는** 충성과 애국의 길"(2023년 3·8부녀절 노동신문 사설)

바. 건전한 외모 가꾸기

가부장적 국가는 여성의 외모가 "건전하고 고상"해야 한다고 교육했다. 이는 "조선녀성의 아름다움"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는 건전하고 고상한 여성의 외모를 "문화도덕적으로 아름답고 순결"함과 연관시켰다. 그래야 "나라가 문명해지고 가정과 사회가 건전"해진다고 교육했다.

『조선녀성』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마다 이상적연 여성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게재했다. 『조선녀성』에 게재되지 않은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은 건전하고 고상하지 못하게 된다.

---

79) "가두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짜고들자,"『조선녀성』2017년 3호, pp.28

80) "사회에 적극 진출하는 것은 우리 시대 여성들의 본분," 『조선녀성』2018년 10호, pp.34

81) "녀성들을 사회에 적극 진출시키는 것은 녀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조선녀성』2019년 8호, pp.33

· “례의도덕과 공중도덕을 잘 지키며 **옷차림과 몸단장을 건전하고 고상하게** 하여 **조선녀성의 아름다움**을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4차 어머니대회 노동신문 사설)

· “녀성들은 례의도덕과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옷차림과 몸 단장을 고상**하게”(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19년·2018년·2017년·2016년·2012년 3·8부녀절 노동신문 사설)

· “녀성들이 **문화도덕적으로 아름답고 순결해야 나라가 문명해지고 가정과 사회가 건전해지며”**(2024년 3·8부녀절 노동신문 사설)

사. 전통을 이용한 이혼 만류

가부장적 국가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라고 교육했다. 이혼이 늘어난 이유는 시장 활동으로 경제력을 얻은 여성이 폭력적이거나 무능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시장 활동으로 여성의 활동 공간이 기존보다 넓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는 이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하지 않았다.

국가는 대신 전통을 불러냈다. “옛날부터 한번 결혼을 하면 갈라지지 않”은 것이 “우리 민족의 고상한 미풍양속”이라고 교육했다. 이 같은 전통은 “위대한 령도자”인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전달되기에 더 권위를 얻게 된다.

국가의 전통 호출은 국가의 필요에 의한 자의적인 행위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평등 사회를 이뤄낸 사회주의 국가가, 고조선과 조선 시대의 풍습을 현재로 불러온 것은 이혼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재판 이혼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이혼을 막아왔던 국가가 전통을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이혼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처벌 위협을 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옛날부터 한번 결혼을 하면 갈라지지 않고 일생을 같이 사는 좋은 풍습**이 있습니다》 한번 맺은 사랑의 언약을 일생토록 굳게 지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상한 미풍량속** (중략) 옛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에서는** 《녀성들이 행실이 단정하고 신의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고대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 부부사이의 신의가 매우 두터**웠으며”(『조선녀성』)[82]

2. 전통적 여성 역할 유지를 위한 처벌 위협

가. 비공식 영역에서 ‘큰 수익’

가부장적 국가는 시장 활동을 통해 ‘큰 수익’을 버는 여성에 대해 처벌 위협을 했다. 『로동신문』과 『조선녀성』에서는 ‘시장’이나 ‘장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래 『조선녀성』에서 명시한 것처럼 “돈에 눈독을 들이고 돈에 미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는 영역은 시장밖에 없다. 국가는 여성의 시장 활동을 전제로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시장 활동으로 큰 수익을 버는 행위를 “비사회주의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국가경제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생산력을 저해”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지장”을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돈맛이 들게 되면”, “인간쓰레기가 되고 만다”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 부정적인 면은 감추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방식이 북한의 주된 사상학습방식임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표현이다. 그만큼 국가가 강하게 처벌 위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이 시장 활동으로 벌어들인 큰 수익으로 “자기 안일과 향락”을 추구하고 있다고 국가는 지적한다. 경제적 권력을 얻은 여성이 개인의 욕구를

82) “유구한 력사와 민속, 결혼생활을 통해 본 고상한 미풍량속,” 『조선녀성』 2021년 5호, pp.52

실현하고, 남들보다 우월한 삶을 누리려 하는 것을 국가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돈은 반드시 필요한 수단의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람이 지내 **돈에 눈독을 들이고 돈에 미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게** 된다. 고지식하고 청렴결백하던 사람도 **돈맛이 들게되면** 사상적으로 변질되게 되며 나중에는 **자기 개인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속물로, 당과 수령, 조국과 민족도 서슴없이 배반하는 인간쓰레기가 되고**만다.”(『조선녀성』)[83]

·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은 국가경제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생산력발전을 저해**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지장을 주게 된다.** 당과 국가의 리익은 생각도 하지 않고 **개인의 리익만 추구하면서** 혁명적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현상”(『조선녀성』)[84]

나. 상위 계층으로 ‘구별 짓기’

가부장적 국가는 자신의 가족을 상위 계층으로 구별 지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처벌 위협을 했다. 상위 계층으로 구별 짓는 활동은 자녀 양육에서 도드라졌다. 자녀에게 세 글자 또는 네 글자의 “외국식 이름”을 지어주고, “별난 옷을 입히면서 남들보다 특별하게 내세”운다. 또 자녀들이 “우리 식이 아닌 언행”을 하도록 장려한다. 우리 식이 아닌 언행이 무엇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맥락상 외국식 예의범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에게 문화 자본을 얻게 해 가족의 신분 상승을 꾀하는 여성들을 국가가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특별한 자녀 양육은 경제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여성이 경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시장 활동이 거의 유일하다. 이 점에서 시장에서 큰 수익을 벌어들인 여성이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이 같은 구별 짓기를 하는 것으로 추

83) “사람이 돈에 환장하면 나라와 민족도 서슴없이 배반하게 된다,”『조선녀성』 2017년 5호, pp.16
84)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이자,”『조선녀성』 2019년 1호, pp.51

정할 수 있다.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가족의 신분 상승을 꾀하는 여성에게 국가가 처벌 위협을 하고 있다.

·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고 우리의 문화정서에 부합되는 이름짓기 방식, 이름짓기 기풍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중략) **우리 내부에 외국식이름이 들어오는데 대하여 각성을 높여야 한다.** 예로부터 조선사람의 이름은 두글자이므로 성을 제외한 이름이 될수록 **세글자, 네글자가 되지 않게 지어야**”(『조선녀성』)[85]

· “**비사회주의적인 문제들을 일소하고**(중략)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모두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해결”(5차 어머니대회 김정은 연설)

· “어떤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공부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언어례절을 비롯한 례의와 도덕에 대한 교양은 소홀히 하거나 **우리 식이 아닌 언행을 뻔히 보면서도 내버려두고있으며** 또 어떤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별난 옷을 입히면서 남보다 특별하게 내세워**야 어머니구실을 잘하는것으로 여기고있습니다.”(5차 어머니대회 김정은 연설)

다. ‘성적 매력’ 드러내기

여성의 외모가 “건전하고 고상”해야 한다고 교육했던 가부장적 국가는,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는 외모 가꾸기에 대해선 처벌 위협을 했다. “지나치게 딱 달라붙는 옷”, “몸의 곡선미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옷, “허벅다리가 보이는 짧은 치마, 속옷이 다들여다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을 처벌 위협의 대상으로 삼았다. 국가는 이런 옷을 입은 여성은 “머저리가 되고 그 민족은 망하기 마련”이라고 처벌 위협했다.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는 외모 가꾸기에 처벌 위협을 하는 것은 새로운

85) “자식들의 이름을 우리 식으로 고상하고 건전하게 짓자,”『조선녀성』2022년 8호, pp.50

여성상 출현을 막는 행위로 풀이된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강하게 통제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됐던 어머니·아내·며느리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선녀성』에서 외모 가꾸기와 관련해 '비사회주의화'를 우려하면서 통제하는 경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났는데, 주로 민족옷(조선 옷) 착용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86] 이는 여성에게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요구하는 복고주의적 흐름으로 이어진 바 있다.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는 외모 가꾸기는 한류 등 외국 문물 유입을 차단과도 연관돼 있다. "추세라고 하면서", "조선의 미감에 맞지 않는", "남의 옷을 입고" 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외국의 패션을 모방한 것이다. 국가는 외국의 문물을 경험한 여성들이 외국 여성들의 사고방식을 따라 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특히 **추세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딱 달라붙은 옷을 입고**다니는 현상은 다 민족성을 지키지못하고 (중략)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목도리를 볼품없이 둘둘 말고다니는** 등 우리 인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지 말아야."(『조선녀성』)[87]

· "**조선사람의 미감에 맞지 않는 문양이나 요란한 장식**이 있는 옷, 품이 너무 좁아 **몸의 곡선미가 그대로 드러나보이는** 것, 머리를 지나치게 길게 기르거나 풀어헤치고 다니는 것, 같은 옷을 입어도 단정하게 입지 못하고 다니는 것 등(『조선녀성』)[88]

· "조선사람의 미감에 맞지 않는 요란한 무늬나 장식이 있는 옷, **몸의 륜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바지나 허벅다리가 보이는 짧은 치마, 속옷이 다들여다보이는 옷** 등은 우리 식이 아니다. 그리고 녀성들이 **머리칼에 밤색물감을 들이고 머리칼을 토끼꼬리처럼 틀어올리거나 허리부위까지 길게 기**

86) 조영주,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정치," 『북한연구학회』 제18권 2호, 2014, pp.106~107
87) "겨울철 옷차림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하자," 『조선녀성』 2012년 11호, pp.53
88) "옷차림과 몸단장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우리식으로 하자," 『조선녀성』 2018년 10호, pp.53

르고 다니는 것은 우리 녀성들의 고상한 정신적풍모와 미감, 아름다운 용모에 어울리지 않는다.(『조선녀성』)[89]

· **"남의 옷을 입고 남의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저리가 되고 그런 민족은 망하기 마련"**(『조선녀성』)[90]

3. 변화된 여성 역할 묵인과 독려

가. 변화한 공식 노동과 조직 생활

가부장적 국가는 공식 영역의 노동이나 여성동맹의 조직 생활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을 '묵인'했다. 『조선녀성』에는 초급여맹위원장이 문제를 빚는 여맹원을 설득해, 모범 여맹원으로 거듭나게 만든 사례가 등장한다.

한 여성은 "자기 딴에는 좋은 일자리에 진출하겠다"며 공식 영역의 노동에 진출하지 않고 있었다. 초급여맹위원장은 이 여성을 설득해 승강기 사업소에서 일하게 했다. 해당 여성이 가려고 했던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는 명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가 공식 영역의 노동에 나서지 않은 여성에 대해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동맹의 "학습과 조직생활"이나 "대중체육사업" 등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들도 등장한다. 역시 조직 생활 미참여의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가 이를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시장 활동이 만연하다는 점에서, 시장에 나가기 위해 조직 생활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조직 생활을 참여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국가의 묵인은, 생계 유지를 위해 시장 활동을 하는 여성을 묵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89)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세우자, 지상강좌, 이색적인 생활양식을 철저히 배격하자,"『조선녀성』2021년 1호, pp.49

90) "녀성들의 옷차림은 소박하면서도 맵시있게,"『조선녀성』2017년 1호, pp.54

· “이런 실례가 있다. 륭흥1동의 한 녀맹원이 사회에 나가겠다고는 하지만 **자기 딴의 좋은 일자리에 진출하겠다는 것**이였다. 이때 초급녀맹위원장 류숙영동무는 그와 만나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이제 얼마 안있으면 동무도 려명거리 새집에 이사하게 된다. 려명거리가 어떤거리인가. (중략) 류숙영 동무의 진심어린 이야기속에 천예영 동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일먼저 려명거리승강기사업소에 진출하였다**(『조선녀성』).[91]

· “일부 녀맹원들이 대중률동체조와 건강태권도를 비롯한 **대중체육사업에 잘 참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날 때**에도 정옥순 동무는 승벽심이 강한 녀맹원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조선녀성』)[92]

· “초급위원회안의 뒤떨어진 녀맹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료해사업을 진행하던 정복동무는 어느 한 초급단체의 **조동무가 학습과 조직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아** 말밥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였다. (중략) 학습과 조직생활에 참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동무의 생활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조선녀성』)[93]

나. 엘리트 여성

새로운 여성 활동에 대한 ‘독려’는 유일하게 엘리트 여성을 상대로 나타났다.『조선녀성』의 한 일화에 등장한 김정일은 여성 과학자를 대상으로 “처녀시절에는 꽃을 피우다가도 결혼만 하면 희망도 포부도 다 버리고 주저앉는 녀성들이 적지 않”다면서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과학

91) “이들처럼 더 많은 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자:평양시 대성구역녀맹위원회 사업에서,” 『조선녀성』2017년 12호, pp.52

92) “품을 들여야 열매가 크다: 인민봉사총국 창광봉사관리국 초급녀맹위원회 사업에서,” 『조선녀성』2015년 1호, pp.52

93) “대중이 따르는 우리 녀맹위원장: 천리마구역 봉화동총급녀맹위원회 위원장 김정복 동무,” 『조선녀성』2018년 1호, pp.48

자 아내를 둔 남편에게 “안해를 잘 도와주어 과학연구사업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최고지도자가 남편에게 아내를 도우라고 권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 글에 등장하는 최고지도자 “위대한 장군님”은 김정일을 지칭한다. 여성 과학자 등 엘리트 여성 육성은 김정은 시대의 정책이다. 그럼에도 선대 지도자인 김정일을 등장시킨 이유는, 여성 엘리트 육성 정책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 “처녀시절에는 꽃을 피우다가도 **결혼만 하면 희망도 포부도 다 버리고 주저앉는 녀성들이 적지 않은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된다**. (중략)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남편의 손을 잡으시고 과학자를 안해로 삼은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안해를 잘 도와주어 과학연구사업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고 떠나시었다.”(『조선녀성』)[94]

제2절 담론 전개 양상의 원인 분석

1. 전통적 여성 역할 이행 위한 ‘교육’ 강조의 원인

『로동신문』의 제4·5차 어머니대회, 3·8부녀절에 대한 보도와『조선녀성』에서는 주로 전통적 여성 역할 이행을 위한 ‘교육’이 나타났다. 출산과 양육, 가족구성원과 관계, 사회주의 대가정의 어머니, 수령에 대한 충성, 공식 영역의 노동, 건전한 외모 가꾸기, 이혼 만류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가부장적 국가의 반격이 주로 전통적 여성 역할 이행을 위한 교육으로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는 전통적 여성 역할 유지를 위한 ‘처벌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한다.

94) “한 녀성과학자를 공학박사로 키워주시여,”『조선녀성』2014년 12호, pp.12

첫째, 여성의 시장 활동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돼 국가가 이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시장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이 기업소·공장 등 공식 영역의 노동을 통해 얻는 수익보다 많다. 또 시장에서 번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한다. 이 상황에서 국가가 '기업소·공장을 벗어나 시장 활동을 하면 처벌하겠다'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두여성이 공식 영역의 노동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면서 '교육'의 방식을 택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둘째, 이미 이중·삼중의 고강도 노동을 하는 여성에게 전통적 여성 역할 유지를 위한 '처벌 위협'은 오히려 국가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국가는 이미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 집안일, 남편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감정노동, 고아와 전쟁로병에 대한 사회 복지적 활동, 기업소·공장의 노동, 여성동맹의 조직 활동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실에서는 여성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한다. 여성이 시장에서 번 돈의 일부는 기업소·공장의 관리인·지배인에게 뇌물로 전달돼, 간접적으로 국가 재정을 보조한다.

이 상황에서 국가가 여성의 짐을 덜어주는 남녀평등에 대한 조치를 내놓지 않은 채, 전통적 여성 역할 유지를 위한 '처벌 위협'만 하는 것은 여성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여성의 반발을 사는 것은 "수레의 한쪽 바퀴", 즉 주민 절반의 지지를 잃게 되는 것과 같다. 특히 3·8부녀절 노동신문 사설에서는 '처벌 위협'의 목소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성 명절인 이 날만큼은 평소 고된 노동을 하는 여성을 국가가 달래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국가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출산과 양육·가족구성원과의 관계·수령에 대한 충성·건전한 외모가꾸기·이혼 만류 등은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며, 사적인 영역에서는 '교육'을 통해 이데올로기에 순응토록 하는 것이 '처벌 위협'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인구와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또 역할을 한정짓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전유하려 한다. 하지

만 여성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이 같은 전유는 쉽게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예컨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면 국가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처벌 위협을 하는 것보다는, 출산과 양육의 기쁨과 의미를 교육해 여성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다출산 여건 보장을 위한 노력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2015년 사회주의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출산휴가를 기존 '산전 60일 산후 90일'에서 '산전 60일 산후 180일'로 확대한 바 있다.

남편·며느리·시어머니·동서 등 가족 구성원과 관계 역시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 안에서 일어난다. 이혼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1956년 합의에 의해 이혼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할 수 있게 해왔다. 가정 내에서 남성보다 지위가 낮았던 여성이 쉽게 이혼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여성을 억압해왔던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처벌 위협보다는, "옛날부터 이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만들어진 전통'으로 여성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2. 전통적 여성 역할 유지 위한 '처벌 위협'의 원인

전통적 여성 역할 유지를 위한 '처벌 위협'은 '교육'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처벌 위협은 비공식 영역에서 얻는 '큰 수익'에서 나타났다. 상위 계층으로 '구별 짓기'와 '성적 매력'을 드러내는 부분에서도 나타났다. 이 같은 영역에 대해 가부장적 국가가 '처벌 위협'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여성이 시장에서 얻는 수익이 평균적인 주민의 수익에 비해 월등히 많으면, 여성의 '노동계급화'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1958년 내각결정 84호 <인민경제 각 부문에 여성들을 더욱 인입시킬 데 대하여>를 발표한 이후 줄곧 여성이 사회적 노동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추진해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시장 활동을 국가가 묵인한 이유는 당시 여성의

시장 활동의 목적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었고,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은 노동계급화 정책을 크게 흔들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생계유지를 넘어 '큰 수익'을 목적으로 한 시장 활동은 국가에게 다르게 인식된다.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의 적절한 균형점을 유지하려는 국가에게, 큰 수익을 목적으로 한 여성의 시장 활동은 이 균형점을 깨트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가두여성을 기업소·공장 등 공식 영역의 노동으로 유입시키려고 국가가 노력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균형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큰 수익을 목표로 둔 여성의 시장 활동에 대해 국가가 처벌 위협을 했다는 것은, 여성이 할 수 있는 시장 활동의 마지노선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상위 계층으로 '구별 짓기'는 새로운 계급의 출현을 의미하며, 이는 북한이 명목상으로나마 유지해온 '인민 평등성'의 원리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은 여성들은, 경제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자본까지 얻으려 한다. 자녀에게 '외국식 이름'을 지어주고, '별난 옷'을 입히며 외국의 예의범절을 학습시킨다. 불법적인 과외 교습으로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는 것도 문화 자본을 공식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이다. 문화 자본은 계급적 배경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적 취향을 말한다.

자신의 가족을 상위 계층으로 구별 지으려는 원동력은 개인과 가족의 이기심이다. 이기적인 개인·가족의 출현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도전이다. 이론적으로나마 사회주의 국가는 소수의 자본가가 독점했던 이익을 인민의 대표자인 노동당이 대체해, 사회적 평등을 이룩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기적 개인·가족의 신분 상승을 국가가 방기할 경우 사회주의 국가의 정당성이 옅어지며, 국가 권력의 균열·와해를 불러올 수 있게 된다.

셋째,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는 여성의 외모 가꾸기는 전통적 여성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여성상의 출현을 의미하며, 이는 고정된 여성 역할을 통해 유지해 온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여성에게 전통적 역할을 수행토록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함으로써 쉽게 가능해진 측면이 크다. 이는 남성과 국가에 대한 정조와 지조 등의 보수적인 성 문화와 연결돼, 전통적 여성상에서 벗어난 여성의 행위를 차단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또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바탕으로 유일 지배체제를 유지해온 국가의 질서를 지키는 일과도 연결돼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조선 옷 착용에 대한 강조가 전통적 여성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로, 이것이 다시 국가에 대한 헌신의 요구로 이어졌던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적 매력을 드러내는 외모 가꾸기에 대한 처벌 위협은, 새로운 여성상의 등장을 막고 기존 국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할 수 있다.

3. 변화된 여성 역할 '묵인과 독려'의 원인

가부장적 국가는 공식 영역의 노동이나 여성동맹 등의 조직 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을 어느 정도 묵인했다. 여성들은 이 같은 활동에 빠지는 대신에 시장에 나가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가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나서는 여성들을 묵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공식 영역의 노동과 조직 생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시장'이나 '장사'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도 생계유지를 위한 시장 활동 여성을 묵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부장적 국가가 생계유지를 위한 시장 활동을 '묵인'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된 여성의 시장 활동을 국가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생계유지를 위한 자원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시장 활동까지 막는다면 인민경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생계유지가 아닌 큰 수익을 얻기 위한 시장 활동 여성에게는 국가가 처벌 위협을 했다.

새로운 여성 활동에 대한 '독려'는 유일하게 엘리트 여성에 대해서 나타

났다. 가부장적 국가가 엘리트 여성의 활동을 '독려'한 이유는, 부족한 고급 노동력을 여성 엘리트 계층을 통해 메우려는 국가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집권 초인 2013년 11월 제9차 전국과학자기술대회를 열어, 과학 기술에 의한 지식경제 육성을 강조했다. 과학발전을 통해 강성국가를 만드는 정책에서 김정은은 특히 여성 과학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존 남성 엘리트 노동력만으로는 획기적인 과학발전을 이루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이 과학자 아내를 둔 남편에게 '외조를 잘하라'는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도와주는 대상은 과학자 아내, 즉 엘리트 여성에 국한됐다. 시장 활동으로 지위가 변한 여성에 대해 남편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주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 활동 전반을 옹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엘리트 여성의 활동에 대한 독려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4. 시장화 전·후 국가 대응의 차이

가부장적 국가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의 큰 틀이 시장화 이전과 이후 크게 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출산과 양육, 가정 운영을 책임지고, 세대주인 남편을 받들어 모셔야 하며 사회주의 건설자로서 생산·건설 노동 등에 헌신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역할은 그대로 유지됐다.

시기적으로 시장화가 시작된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는 여성에게 다출산을 요구했다. 이는 당시 시장화에 따른 국가의 요구라기보다는, 대량의 아사자 발생과 노동력 부족에 따른 조치였다. 시장화 이전 생산·건설 분야에서 '노력 영웅'을 내세워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 했던 국가는, 1996년 '모성영웅'이라는 새로운 영웅을 만들었다. 고아 33명을 키운 서혜숙을 비롯해 자녀 9명을 낳은 여성 등이 모성영웅이 됐다.[95]

시장화 이전 국가는 주로 여성에게 전통적 여성 역할 이행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주로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과 김일성의 아내이자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을 본받도록 하는 교육을 통해 이뤄졌다. 강반석·김정숙을 본받도록 하는 교육은 시장화 이후에도 지속하고 있다. 강반석은 김일성을 훌륭하게 키우고 일본과 맞서 싸운 항일투사로 교육하고 있다. 김정숙도 일상생활에서 남편에게 순종했고 김정일을 지도자로 양육했으며 친위근위대로서 밤마다 보초를 섰다고 치켜세우고 있다. 물론 이들은 시어머니와 이웃 돌봄에도 헌신했다고 국가는 교육한다. 최고지도자의 아내·어머니를 국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다.

국가가 경제 발전을 위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력갱생하는 여성을 이상화하는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 전쟁 당시 식량 생산을 위해 논과 밭에 나섰던 여성 보잡이들은 시장화 이전과 이후 꾸준히 교육되는 사례다. 농촌과 탄광, 발전소 등에서 생산을 위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여성이 제 몸을 바쳐 일하는 모습도 시장화 전후 꾸준히 교육된다.

하지만 전통적 여성 역할 유지를 위한 '처벌 위협'은 시장화 이후 새로 나타난 현상이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 국가에 강한 통제 아래 소규모로 존재했던 시장은 여성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따라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거나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는 외모 가꾸기를 할 여건이 되지 못했다. 시장화 이전에는 기존 질서를 흔드는 여성의 활동이 드물었기 때문에 굳이 국가가 처벌 위협을 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생계유지를 위한 시장 활동 여성을 국가가 '묵인'하는 모습도 시장화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시장화 이전에는 세대주인 남편이 받아오는 배급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배급이 끊긴 이후에는 여성은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나가야 했다. 이를 묵인하지 않을 경우 시장을 통

95) 송현진, "북한 영웅정치의 변화와 그 요인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현대북한연구』25권 1호, 2022, pp.106

한 식량·생필품 확보에 문제가 생겨 주민들의 삶이 열악해진다는 것을 국가도 알고 있다.

엘리트 여성이라는 새로운 여성 활동을 국가가 '독려'한 것도 시장화 이후 새롭게 나타난 모습이다. 그러나 이는 시장화에 따른 여성 지위 변화에 국가가 대응한 것이라기보다는, 엘리트 여성의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과학 기술 발전을 강조하는 국가가 적극적인 엘리트 여성을 호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여성 지위 변화에 대한 국가의 지지로 해석하기 어렵다.

하지만 엘리트 여성에 대한 국가의 독려가 유리천장을 없애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 여성 과학자 등 엘리트 여성들은 연구소 등에서 고위직에 오르는 경우가 적다. 기관의 대표나 관리직은 으레 남성의 몫으로 인식돼왔기 때문이다.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엘리트 여성들이 결혼 후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가정에 머무르는 현상도 이와 연관돼 있었다.

제4장 문학작품에 나타난 국가의 반격

제1절『조선문학』속 담론 전개 양상

북한 예술작품은 국가와 당의 정책을 선전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둔다. 예술작품의 사상적 알맹이인 '종자'는 "당 정책을 적극 옹호"[96]해야 한다. 북한 예술작품은 주민을 개조하고 교육하는 역할도 맡는다. 현재 비루한 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현실을 이겨내고 장밋빛 미래가 곧 도래한다는 희망을 담아야 한다. 이처럼 북한 예술작품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프로파간다 성격을 띤다.

북한을 대표하는 월간 종합문예지『조선문학』역시 프로파간다 도구이다.

96) 김정일,『영화예술론』(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pp.11

『조선문학』은『청년문학』,『아동문학』,『문학신문』과 함께 조선작가동맹의 기관지다. 조선작가동맹은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의 지도·검열을 받는다. 게재된 문학작품은 작가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집단적 검토와 토의를 거쳐 완성된다.[97]『조선문학』은 다른 기관지에 비해 당국의 문예 정책과 노선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해, 당의 입장을 엿보기에 가장 적합하다.

하지만 예술 작품은 항상 현실 위에 놓여있다. 문학작품 역시 주민의 가정과 일터 등 일상적 삶을 기반으로 창작된다. 역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문학작품은 당의 입장을 선전할 수도, 주민들을 교화하거나 감동을 줄 수 없다. 작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문학작품에선 현실의 목소리가 누설되는 것이다. 누설된 목소리는 복합적이며 중층적이다. 이 때문에 문학작품은 '북한 사회에서 소통되는 지식, 세계관 형성의 내적 맥락, 이데올로기가 스며들어 있는 구조적 결정'[98]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22년까지[99]『조선문학』의 소설을 통해 시장화 이후 여성 지위 변화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핀다.

이번 장에서는 **【표2. 분석 기준】**을 참조하되, 다층적으로 작동하는 국가의 대응과 맥락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설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교육 매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국가 대응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살피기 위해서다. 시장화 이후 여성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특징적으로 드러난 소설을 중심으로 한다.

1. 사적 이익 추구 여성에 대한 '간접 압박'

97) 오창은,『친애하는, 인민들의 문학생활』, (파주:서해문집, 2020), pp.25

98) 오창은, pp.11

99) 2024년 4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따르면『조선문학』은 2022년 12호 이후 남한에 유입되지 않았다.

북한 소설에서 자주 드러나는 갈등 구조는 '국가의 요구 VS 개인의 욕망'이다.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소설은 끝난다. 소설은 주민을 교육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이 같은 결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에게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도록 교육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욕망이 필연적으로 드러난다.

시장화 이전에도 국가의 요구를 개인의 욕망보다 우선시하도록 하는 모습은 발견된다. 시장화 이후 차이점은, 개인의 욕망 중 하나가 시장 활동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임이 직접적으로 암시된다는 것이다. 시장 활동을 통한 사적 이익 대신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라고 국가가 소설을 통해 주문하는 것이다.

김옥순 작가의 단편소설『동창생』(2016년 6호)과 공천영 작가의 단편소설『60청춘』(2017년 5호)은 시장화 이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여성의 욕망을 국가가 포기하도록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논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동창생』의 줄거리를 요약한다.

한송이는 고난의 행군이 끝난 직후 남편을 따라 이사 왔다. 편의사업소에서 미용사로 일한다. 한송이는 XX기계기술대학 기계공학과 동창생 조명숙을 만난다. 조명숙은 한송이에게 농산반기계 설계도면 작업을 같이하자고 권한다. 한송이는 이를 거절하고, 둘은 말다툼을 한다. 조명숙은 제 아들(일국)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 공적인 일에는 발 벗고 나선다. 한송이는 그런 조명숙을 이해하지 못한다. 말다툼 끝에 조명숙은 한송이에게 절교를 선언한다. 조명숙은 늙은 아버지를 모시면서 가정일, 농사일, 기술혁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조명숙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사랑받는다. 두 달이 지나, 한송이는 인민반장으로부터 조명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조명숙은 두 해 전에 기계화 반장으로 뽑혔음에도, 노동력이 부족한 농산반에 자처해서 왔다. 인민반장은 조명숙을 비웃었던 한송이를 에둘러

지탄한다.

한송이는 리 문화회관 앞 속보판에 '기술혁신을 도와'라는 제목의 알림글에 자신의 이름이 쓰인 것을 본다. 군 설계사업소에 다니는 아버지에게 부탁해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조명숙의 집에 가져다줬기 때문이다. 한송이는 조명숙과 화해한다. 두 달 뒤 한송이와 조명숙이 함께 설계한 기계가 농기계 전시회에 출품된다.

한송이는 사적 이익, 조명숙은 공적 이익의 체현자다. 한송이는 편의사업소라는 공식 영역에서 일하고 있지만, 공적 이익에는 관심이 없다. 이 점에서 한송이는 시장 활동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여성을 대리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난" 뒤라는 소설의 배경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송이와 조명숙의 충돌은, 한송이의 참회와 회심으로 끝난다. 시장 활동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여성이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다시 말해 가부장적 국가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여성에게 도덕적 반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장 활동 여성에게 반격을 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조명숙과 한송이가 다투는 대목이다.

"《난 우리 매 사람들이 일을 쓰게(제대로) 못해서 나라쌀독이 비였구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된 거라구 생각한다. **그래 넌 지금 미용사이니 상관없다는 거야? 자기만 잘살면 그만이라는거지?**》

《너무 그러지 말아. 여자에겐 가정이 첫째야. **너도 지금 일국이를 배불리 먹이지 못한다고 가슴이 아프다구 했지?** 그래 그게 가정부인인 네탓이 아니란 말이냐? **난 오히려 네가 불쌍하다.**》"(pp.64)

조명숙에게 한송이는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인 이기적인 사람으로 인식된다. 반면 한송이에게 조명숙은 제 아들의 배고픔도 보살피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일 뿐이다.

한송이와 조명숙의 충돌은, 소설 중반부 인민반장이 등장한 이후 조명숙의 승리로 기운다. 인민반은 북한 행정 조직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 인민반장은 소속 주민들의 추천형식을 거쳐 시·군(구역) 인민위원회에서 지명한다. 따라서 인민반장은 국가를 상징한다. 사적 이익 체현자(한송이)와 공적 이익의 체현자(조명숙)의 대립이 국가(인민반장)의 등장으로 공적 이익 쪽으로 기운 것이다. 다음은 인민반장이 한송이에게 말하는 대목이다.

"《물론 **동무한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중략)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구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두 오히려 배를 내밀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살줄 모르는 인간들이라구 비웃고** 있단 말이예요.》 둔한 쇠붙이로 **뒤통수를 힘껏 후려친 듯 정신이 아찔해졌다.**"(pp.65)

국가의 상징인 인민반장은 한송이를 비판하면서도, 한송이의 태도 변화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인민반장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두 오히려 배를 내밀고" 산다며 한송이를 도덕적인 비난을 한다. 인민반장은 그러나 한송이의 태도 변화를 "강요할 수 없"다고 자신의 행위에 선을 긋는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한송이는 조명숙에게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패배하게 됐다. 패배의 충격은 "뒤통수를 힘껏 후려친 듯"할 정도로 강하게 한송이에게 인식됐다.

국가는 생계유지를 위한 사적 이익 추구 여성에게 강압적으로 태도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대신 누가 공동체의 윤리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태도 변화를 유도했다. 이로써 '이기심(한송이)'과 '도덕성(조명숙)'의 대립에서 도덕성의 승리가 선언됐다.

인민반장(국가)가 한송이(사적 이익 체현자)의 태도 변화를 강요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소설이 한송이의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장 활동을 대리 상징하는 여성이 소설의 화자라는 점은, 역으로 여성들에게 공적 이익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100]를 낳는다. 시장 활동 여

100) 오창은, "북한 자력갱생 담론과 인민의 삶 대응 양상 연구," 『통일인문학』 제80집, 2019년, pp.11

성에게 스스로 자신이 사적 이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았는지 반성케 한다. 공적 이익 추구에 대한 동기부여를 여성 스스로 획득하게 만드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개인의 내적인 영역에서는 국가가 처벌 위협을 하는 것보다, 개인이 이데올로기에 순응토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국가의 계산이기도 하다. 다음은 조명숙과 말다툼을 한 뒤 한송이가 하는 독백이다.

"설사 나같은 연약한 여자 하나가 설계도면 앞을 떠나 **자기 생활의 울타리 안에 파묻혔다 한들 그것이 무슨 그리 큰일이란 말인가**? 여자란 별수 없지 않은가?! (중략) **환경에 적응할줄 아는 것도 여자의 장점 중의 하나가 아닌가?"** (pp.61)

한송이는 처음에는 스스로 반성하기를 꺼린다. "환경에 적응할 줄 아는 것도 여자의 장점"이기 때문이다. 자기 이익만 차린다고 비웃는 조명숙의 시선은 한송이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한다. 이는 생계유지를 위한 시장 활동에 나선 여성들이 자신의 활동을 긍정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송이가 미용사로서 얻는 정보는 사적 이익 추구 활동에 보탬이 된다. "미용소란 안테나가 높은 방송중계소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여성들 사이에 흐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저러한 평가는 물론 사생활"정보가 사적 이익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 활동의 주축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들 사이에서 나오는 정보가 시장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깨끗하게 꾸려진 작업장에서 미를 갖고 싶어하는 녀성들에게 아름다움을 가꿔주는 **좋은 직업을 두고 구태여 고달픈 그 길에 스스로 또다시 들어설 필요가 뭐란 말인가.** 더욱이 **미용소란 안테나가 높은 방송중계소 같은 곳이여서** 굳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에 대해 이러저러한 평**

가는 물론 사생활에 대해서도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pp.63)

한송이가 조명숙처럼 공적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했다. 인민반장과 만남 이후 한송이는 자신이 공동체로부터 외면을 당할까 염려하게 되고, 이는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진다. "모두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명숙의 주위에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과 대조된 뒤, "보신이라는 울타리에 스스로 갇"힌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다음은 한송이의 독백이다.

"송이는 더럭 겁이 났다. **모두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부지불식간에 갈마들었다. 이악스런 노력으로 생활상 부족을 모르고 살면서도 왜 자꾸 마음이 서글퍼지군 했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얼핏 보건대도 **명숙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붐볐다.** 농장의 숨결이 그대로 명숙이의 숨결인 듯 느껴진다. **하지만 나의 주위에는**...(중략)

나는 지금까지 내 일이 아닌 것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지금껏 보신이라는 울타리에 스스로 갇혀 옥살이를 했단 말인가.** 가슴이 후두둑 방망이질을 시작했다." (pp.66)

국가는 "이악스러운 노력으로 생활상 부족을 모르고" 살던 시장 활동 여성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는다. 경제 위기 이후 이악스러운 여성의 노력이 없었다면, 여성이 자신과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 아득바득 살지 않았다면 가정 경제는 쉽게 무너졌을지 모른다. 국가도 이를 모르지 않기에, 이악스러운 여성의 시장 활동을 강하게 나무랄 수만은 없다.

대신 국가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여성에게 '공동체 따돌림의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그 태도 변화를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시장 활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여성에 대해 국가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60청춘』에는『동창생』과 유사하게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대립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다만 두 소설의 주인공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적극성에는 차이가 있다. 줄거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 주인공 '나'는 과수분조장 춘화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는다. 나와 춘화는 올해 63세다. 처녀시절 농산작업반에서 경쟁자로 지내다가, 춘화가 1994년 과수분조로 일터를 옮겼다. 나는 로동법에 따라 55세에 '년로보장'을 받았다. 이후 딸의 집안일을 돕고 손자손녀를 돌본다. 반면 춘화는 년로보장을 거절하고 과수분조장으로 계속 일한다.
>
> 나는 춘화가 일하는 과수분조를 찾는다. 나는 영화『월미도』에서 소녀 대원 영옥이 부르는 노래를 부른다. 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춘화를 본다. 이후 나는 틈이 날 때 과수분조를 찾아 일을 돕는다. 춘화의 계획대로 과수분조에 축산기지가 꾸려졌고, 나무 품종도 늘었다.
>
> 퇴원 후 춘화는 자신의 생일날에도 과수원에 나가 일한다. 나는 춘화에게 다시 "이제 그만 쉬라"고 권하지만, 춘화는 거듭 거절한다. 춘화는 군 당책임비서로부터 생일축하 전화를 받는다. 영화『월미도』의 노래를 떠올린다.

연로보장도 거부한 채 과수분조장으로 일하는 춘화는 '공적 이익의 체현자'다. 반면 연로보장을 받는 '나'는 '사적 이익의 일부 체현자'다. '나'는 『동창생』에서 등장한 한송이처럼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젊은 시절 농산작업반에서 열심히 일해, 공적 이익에 대한 봉사를 완료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가부장적 국가는 '나'를 춘화와 대립적인 위치에 놓음으로써, '나'를 사적 이익의 일부 체현자로 만들었다. 다음은 '나'와 춘화가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다.

"《분조장, 미안하구만. 나는 분조장의 가슴속 불이 아직도 그렇게 이글거리는줄은 몰랐어. 한데 나라에선 로동년한이 지난 사람들의 여생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따뜻한 시책들을 베풀어주나. 이젠 집에 들어가 쉬여도...**》

《행복이란 생각할탓이지. 난 지금 **나를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자**로 여겨. 일이 행복이야. 나라에서 나이든 사람들을 아껴줄수록 **이 좋은 사회를 위해 더 일하고싶은 그 마음은 어느 늙은이에게나 다 있다고 생각해.** 아니, **난 아직 나를 늙었다고 여겨본적이 없어**.》" (pp.76~77)

국가는 연로보장이라는 사회보장 제도를 국가가 제공하는 "따뜻한 시책"으로 인식하게 했다. 젊은 시절 노동력을 바친 주민이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베푼 시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심리적 정당성을 획득했다. 이 도덕적·심리적 정당성은 스스로 "늙었다고 여겨본 적 없"는 춘화가 추가적인 헌신을 내놓는 것으로 이어진다. 다만 국가의 시혜로 보더라도 "이제 집에 가서 쉬"라는 권유는 사회적으로 정당하다. 다음은 춘화가 '나'에게 하는 말이다.

"《난 늙고싶지 않아. **우리 늙지 말구 당을 위해, 이 좋은 사회를 위해 일을 더 하자구**. 얼마나 좋고 벅찬 세월인가. (중략) **천리마를 타던 젊은시절 그때처럼 원수님 펼치시는 그 길을 따라 만리마속도로 젊은이들과 같이 달리려는 것이 내 마음이야.**》"(pp.77)

시장 활동의 주축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60대 이상의 여성들 역시 시장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복지 시스템이 미약하기에, 시장 활동을 통해서 생계유지를 위한 부수적인 수입을 얻으려는 여성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0대 여성을 공적 영역의 노동으로 유도하는 소설은, 그들의 시장 활동을 간접적으로 막아내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설에서 '나'가 사적 이익을 위해 하는 일은 딸의 집안

일을 돕고 손주들을 돌보는 일로만 그려지지만, 이는 시장 활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북한 소설의 특징일 수 있다. 앞서 국가가 가두여성에 대한 사회 진출 독려가 시장 활동 여성을 공식 영역의 노동으로 유인하려는 노력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동시에 이는 노동력 부족을 겪는 국가가 60대 이상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이들의 노동 참여는 그들에게 투입되는 사회 복지 자원을 줄이는 양수겸장의 카드로 작동할 수 있다. 노동이 가능한 여성은 국가의 돌봄 없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나'가 춘화의 일터를 찾아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모두가 노래의 세계에 푹 잠겨들었다. 나의 눈앞에도 예술영화 <월미도>의 숭엄한 장면들이 떠오른다. 무전수 영옥이의 예쁜얼굴과 그 처녀가 최후를 마치는 화면이 삼삼 밝혀온다. (중략) 《난 이 노래를 좋아해요. 나는 이 노래를 부를때마다 영옥이곁에 나를 세워보군 해요. **동무들, 우리모두 50년대 영옥이의 정신에 자신들의 마음을 바쳐보아요.**》"(pp.72)

1950년대는 사회주의 이상 국가를 위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공식 영역의 노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시기다. 경제 위기로 촉발된 시장화를 겪은 이후 상당수의 주민들은 이상 국가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자각했다. 이 때문에 국가는 1950년대를 다시 불러내, 이상 국가 건설을 위한 여성들의 추가 노동력을 요구했다.

그렇다고 '나'가 춘화처럼 연로보장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대신 틈날 때마다 춘화를 돕는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부르는 노래는 '나'가 춘화와 뜻을 함께 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는 국가가 연로보장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로보장은 북한 주민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명분이자, 노동력 동원의 혜택으로 주어진다. 이를 국가가 자기 손으로 없앨 경우 국가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대신 국가는 연로보장을 포기한 여성 영웅을 내세우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그에 동화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식 영역 노동의 의무에서 벗어난 60대 이상 여성의 시장 활동을 막고 공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가가 반격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국가·남성 연대 '균열 지우기'

앞서 북한의 유일 지배체제는 가부장제와 얽혀있는, 가부장제 국가임을 밝힌 바 있다. '수령(아버지) - 당(어머니) - 인민(자녀)'라는 가부장 질서를 통해 국가의 지배를 정당화했고, 여성에게 한정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남성과 함께 여성을 지배해왔다.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국가의 요구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요구가 일치하는 경향을 띠어왔다.

국가와 남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성은 '슈퍼우먼'이 돼야 했다. 예를 들어, 시장화 이전 강복례의 단편소설『직장장의 하루』(1992년 8호)는 농업대학 강좌장을 남편으로 두고 방직공장에서 직장장으로 일하는 김명옥이 나왔다. 김명옥은 남편의 뒷바라지와 두 아이의 양육, 직장장 임무를 모두 성공적으로 해내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시장화 이후 소설에서는 '국가의 요구 = 남성의 요구'라는 등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된다. 국가와 남성이 각각 여성에게 요구하는 일을, 여성이 다 감당해 내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국가와 남성의 지배 연대에 균열이 일어난 것임을 보여준다. 그 균열의 지점은 새로운 여성이 등장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된다.

김홍균 작가의 실화문학『행복한 사람들』(2017년 2호)과 서청송 작가의 단편소설『은하수』(2017년 9호)를 통해 가부장적 국가가, 국가·남성의 지배 연대 균열·변화의 길목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은『행복한 사람들』의 줄거리다.

허문숙은 온성군의약품관리소장이다. 10년전쯤 제염소건설장에서 순직한 남편의 뒤를 이어 소장직을 맡았다. 허문숙과 동료들은 약초재배지 개간전투를 벌인다. 허문숙은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며칠간 자면서 일하자고 제안하지만, 여성 동료들은 집안일 때문에 난감해한다.

허문숙은 약초 캐기, 살림집 보수, 농축기 제작 등 분주하게 일한다. 위험한 일에도 먼저 나선다. 허문숙은 며느리 고향에서 열리는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개간지 일을 우선시해서다. 전쟁로병을 챙기고, 의약품 관리소 일에도 모두 성공한다.

허문숙과 그의 동료들을 소개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린다. 최고지도자로부터 허문숙의 의약품관리소가 칭찬을 받았다는 소식도 듣는다.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됐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남편이 밥 짓기나 땔감 구하기 등 일부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가정에 따라 남편이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생겼다. 하지만 집안일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 집에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는 땅을 개간해 약초지를 만드는 일이 속도가 나지 않자, 허문숙은 현장에서 숙식하며 일하자고 권한다. 하지만 여성 동료들은 난감해한다. 여성들의 직장 생활로 집안일을 하게 된 남성들로부터 원성을 사기 때문이다. 여성이 직장 일로 장시간 집을 비우면 남편에게 쫓겨날 것이라고 걱정한다.

“회계원 화숙이 한 소리가 귀에 밟혔다. 《엊저녁에 들어가니 애아버지가 외출복을 그대로 입고 밥을 짓기에 옷이나 갈아입고 할것이지 하고 속상해서 한마디했더니 **남편이 ‘갈아입을 옷이 있어야지. 치마가 있으면 내 당장 갈아입겠는데...’하지 않겠어요. 가만히 보니 심술을 쓰는게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에 잘못 왔나봐요.》”(pp.34)

“옆에서 재재원 영희가 하는 소리가 그래도 허문숙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건 행복투정이야**. 사정은 다 같애. **나도 세대주가 밥이 타는줄도 모르고 자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한마디 했다가 되몰리워 눈물까지 흘렸는데 뭐**. 남편이나 자식두 거두지 못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고 하지 않겠어. **그러나 그런 소리두 대신 부엌일 해주는 남편을 끼구 사는 우리네나 듣지. 소장선생은 밥을 할줄두 모르는 아들이 자는 집에 들어가 이제 밥을 지어줘야 해**.》”(pp.34)

“《어마, 지금처럼 오르내리는것도 집안 돼가는 꼴이 뭐가 되느냐며 시펄뚱해 **독을 쓰는데 집을 버리구 며칠 가 있으면 아예 쫓아내자고 할거에요**.》화숙이 하는 소리에 영희가 문숙의 얼굴을 쳐다 보았다.”(pp.37)

남성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공적 영역의 노동을 하느라 하지 못하게 된 집안일을 남성이 떠맡게 됐기 때문이다. 화숙과 영희의 남편이 “심술”을 부리고 “독을 쓰”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에게 맞서지 못한다. 오히려 피해자가 된 남성들에게 미안해하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다. 화숙이 일부 집안일을 한 남편이 화를 내자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내가 여기(화숙의 직장인 온성군의약품관리소)에 잘못 왔나봐요”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남편뿐 아니라 아들도 마찬가지다. 영희가 “소장 선생(허문숙)은 밥을 할줄두 모르는 아들이 자는 집에 들어가 이제 밥을 지워줘야 해”라는 대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이 상황을 지켜본 허문숙의 속내다.

“영희는 남편을 끼구사는 여자의 행복한 투정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한두번이다. 계속 **남편이 바가지를 긁으면 연약한 화숙이가 견디여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동요하는 **그 여자가 일을 그만두겠다면 그것이 곧**

녀성이 태반인 일터에 영향이 클 것이다." (pp.35)

가정 내 남성의 가부장적 태도는, 여성을 공식 영역의 노동으로 유인하려는 국가의 노력과 정면충돌한다. 국가는 여성에게 공식 영역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반면, 남성은 여성에게 집안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데서 빚어진 국가와 남성간의 갈등이다. 이는 여성에게 슈퍼우먼이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물리적으로 둘 다 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여성은 국가의 요구를 저버리는 것(직장을 그만 두는 것)을 고려한다. 의약품관리소장인 허문숙은 "남편이 바가지를 긁으면 연약한 화숙이가 견디여내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이것이 "녀성이 태반인 일터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또 염려한다. 가부장적 남성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독려하는 국가의 의도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국가의 의도를 침해하는 남성에게 에둘러 그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모습도 보인다. 집안일에 적극적이었던 허문숙의 죽은 남편을 등장시키는 방식을 통해서다. 하지만 허문숙의 남편은 허문숙의 회상 안에서만 등장할 뿐, 실제 화숙·영희나 그의 남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로써 남성의 적극적인 집안일 참여 여부는 허문숙 남편과 화숙·영희 남편의 캐릭터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축소된다. 남성 캐릭터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되면서, '집안일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구조적 성차별은 감춰지는 것이다. 다음은 허문숙이 죽은 남편을 회상하는 대목이다.

"소탈하기도하고 소박하기도 한 남편이었다. **아침출근길에 급하면 아이를 안고 탁아소로 달렸다.** 안해가 만류하면 흔연히 웃었다. 《군당부원도 아버지고 남편이겠지. 별소릴 다하누만. **남들이 보면 어쨌단 말이요. 나만 출근시간이 급하고 당신은 급하지 않단 말이요?** 괜치 않소.》 그런 남편이었다. 저녁이면 퇴근이 늦은 남편이였지만 간혹 빨리 들어온 날이면 설레발을 치며 **안해를 기다리지 않고 저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서군 했다.**" (pp.35~36)

소설 후반부에는 일하는 여성이 가부장적 남성에게 일시적으로 집안일을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국가는 남성의 소극적인 집안일 참여를 “교정”되어야 하는 행동으로 보면서도, 이를 남성에게 주문하지는 않는다. 결국 여성들은 “오늘까지 남편이 지은 밥을 먹기”로 하는데서 그치게 된다. 내일이면 다시 집안일은 여성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다. 다음은 허문숙과 여성 동료의 대화이다.

“《소장선생님, 아무래도 늦은걸 한 10분 춤을 추고 떠나는게 어때요. 래일은 남동무들과 갈라져 다른 일을 하겠는데...》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걱정이 없는 한 녀인이 하는 소리다. (중략) 《**남편들이 기다리지 않겠어요?**》

《걱정마십시오. **이젠 어느 정도 교정이 됐으니 말입니다. 아무래도 늦은 거 오늘까지 남편이 지은 밥을 먹기로 하고** 마음껏 춤을 춥시다.》” (pp.39)

가정 내 남성의 가부장적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국가는 여성 노동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국가는 가부장적인 남성에게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성에 대한 국가·남성의 지배 연대가 와해되면, 결국 가부장적 국가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성 중심의 가정 내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을 기반으로 유지해온 국가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염려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국가·남성의 지배 연대가 균열·변화되는 길목에서, 국가는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직장과 집에서 이중 노동을 감당하지 못해 한계에 봉착한 여성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가가 가부장적 남성에게 태도 변화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사회 활동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도 닫히게 된다. 국가가 국가·남성의 지배 연대의 균열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방식으로, 여성에게 반격을 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여성에 대한 국가의 요구와 남성의 요구가 충돌하는 모습은『은하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은하수』의 줄거리다.

> 김정은 동지는 3·8국제부녀절을 맞아 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에게 각자의 아내들에게 선물을 하라고 권한다. 김무림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 중장은 지난해 60대 아내에게 화장품을 선물했다가 꾸지람을 들었던 이야기를 김정은에게 한다.
>
> 박정향은 화장품 연구사다. 연구는 더디다. 치약 연구를 병행하기 때문이다. 박정향은 비오는 퇴근길에 속도전 청년돌격대에서 일하는 김창수로부터 우산을 양보받는다. 이를 계기로 둘은 가까워져 연인이 된다. 김창수는 자신이 김무림 중장의 아들이며, 처음부터 박정향을 염두에 두고 접근했다고 고백한다.
>
> 박정향과 김창수는 결혼한다. 임신은 미룬다. 아내 박정향이 화장품 연구에 전념하고 싶어해서다. 김창수는 아내의 뜻을 존중하고, 지방 건설현장으로 떠난다. 그러나 박정향의 화장품 연구는 진척을 내지 못한다.
>
> 김정은은 김무림 중장에게서 그의 며느리 박정향의 사정을 듣게 된다. 김정은은 박정향과 그 남편을 평양산원으로 보내 난임 치료를 받게 한다. 또 화장품과 치약을 분리해서 연구토록 지시한다. 1년 뒤 박정향은 딸을 낳고, 김무림 중장은 손녀 이름을 은하로 짓는다.

가부장적이지 않은 남성의 태도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한다. 김무림과 그의 아들 김창수는 결혼 전부터 박정향의 직장 활동을 지지했다. 이 같은 태도는 결혼 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남편뿐 아니라 시아버지까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독려하는 모습은 시장화 이전의 소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91년 정현철 작가의 『삶의 향기』(뻐국새 노래하는 곳, 서울:살림터, 1994)에는 연구소 실험공인 며느리가 가진 일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아버지 안천주가 나온다. 여성은 아이를 잘 키우고 남편 뒷

바라지만 잘하면 된다는 낡은 여성관을 가지고 있어서다. 소설 후반부에 가서야 그는 여성관을 바꾼다. 안천주를『은하수』의 김무림과 비교하면, 김무림은 친여성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김창수가 박정향에게 결혼 전 구애를 하는 대목이다.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야 하고 하늘을 날자면 선녀도 날개옷을 입어야 합니다. **난 정향동무의 우산이 돼주고 날개가 돼주겠습니다. 성공을 위해 맘껏 날아보시오.**》"(pp.11)

"《범같은 우리 아버지가 동무와 살지 못하면 아들취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동무의 연구사업에 밑거름이 돼주라고 하더군요**》"(pp.11)

아내의 "날개가 돼주"려는 남편, 며느리의 연구사업에 "밑거름이 돼주라고" 아들에게 요구하는 시아버지의 친여성적 태도는,『행복한 사람들』에 등장하는 화숙·영희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와 대조된다. 이는 남성들의 계층적·계급적 격차에서 기인한 차이일 수 있다. 김무림은 최고지도자를 가까이서 모시는 최고 엘리트 계층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요구하는 최고지도자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김무림은 며느리의 사회 활동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반면『행복한 사람들』의 화숙·영희의 남편들은 개간지 사업, 살림집 짓기 등의 노동을 하는 서민층이다. 상위 계층의 남성이 여성 친화적 태도로 변하려 노력하는 반면, 하위 계층의 남성은 기존 가부장적 태도에서 변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일 수 있다.

국가가 여성에게 요구한 사회 진출(공적 영역의 노동)과 남성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출산은 정면충돌한다. 공적 영역의 노동을 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모두 여성의 몫이다. 아내 박정향은 아이를 원하는 남편 김창수에게 화장품 연구가 우선이라며 출산을 미루자고 한다. 김창수는 이를 존중한다. 출산과 관련해 남편이 자기 고집을 꺾는 모습은 드문 일이다. 다음은 박정향과 김창수의 대화이다.

“《여보 미안해요. 아이를 낳아주지 못해서...》

《당신이야 그만하면 성공하지 않았소. (중략) **그러나 자식만은 가지고 싶소. 당신도 같겠지. 먼저 아이를 낳고 그 다음 연구를 또하오.** 그럼 더 빨리 성공할거요.(중략)》

남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안해를 생각하는 그 마음도 고마웠다. 또 그도 녀성으로서의 행복을 가꾸고 싶었다. 그러면 병사시절에 다진 맹세는... 정향은 힘들게, 아주 힘들게 말했다.

《미안해요. 달리는 살수 없군요. 난 화장품공장으로 가겠어요.》

《(중략) 여보 나도 당신처럼 살겠소. 그래서 **지방의 중요한 건설대상으로 떠나는 대대에 탄원하려고 하오.** 찬성하오?》”(pp.12)

남편 김창수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아내처럼 국가에 헌신하기로 한다. 김창수가 자발적으로 나선 ‘탄원’은 건설 돌격대, 농촌 돌격대 등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험지에 청년들이 나서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탄원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청년으로 메우고, 그 청년을 영웅으로 내세워 체제를 결속시킨다. 이 부부의 사랑이 국가를 향한 더 큰 사랑으로 대체된 셈이다. 다만 김창수의 건설 탄원을 박정향의 화장품 연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남성의 경우 험지에서 쌓은 경력은 출세를 위해 거쳐야 하는 계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국가의 요구와 남성의 요구가 충돌되는 상황을 쉽게 해결해준다. 박정향 부부를 평양산원으로 보내, 출산을 먼저 하게끔 한 것이다. 여성의 부담이 커지자 국가가 그 짐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방식으로 ‘여성 달래기’를 하는 모습이다. 여기엔 국가가 여성에게 다출산을 요구한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김정은이 박정향의 시아버지 김무림에게 말하는 대목이다.

“《지금 그(박정향)가 자식도 없는데다 남편도 나가산다니 혼자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습니까. 난 그것이 더 가슴아픕니다. 그래도 그 동무는 내색하지 않고 오직 연구사업에만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동무에게 모성의 행복도 주고 가정의 행복도 마련해줍시다**. 사랑이 모든 것을 낳습니다. **그러면 연구도 그만큼 빨리 성공할 겁니다.**》” (pp.18)

소설에서는 김정은이 제시한 해결책이 잘 작동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김정은의 해결책이 근본적인 처방이 되긴 어렵다. 박정향 부부처럼 김정은을 후원자로 두지 않은 평범한 부부가 평양산원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박정향 부부가 쉽게 평양산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김정은이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 소설이 의도한 메시지는 ‘국가가 여성을 보살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이 제시한 해결책이 현실에서는 작동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국가가 제시한 해결책은, 국가의 요구(공식 영역의 노동)와 남성의 요구(출산)가 충돌하는 것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효과를 낳는다. 즉 여성이 고통스럽게 된 원인 자체를 지워버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원인이 사라지지 않기에 이는 착시 효과일 뿐이다. 국가의 요구와 남성의 요구가 충돌하는 것을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국가는 여성에게 반격을 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남성을 보조’하는 엘리트 여성

북한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속도전 운동’을 펼쳐왔다.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영웅을 내세웠고, 이 맥락에서 여성 노력 영웅도 만들어졌다. 공장과 농촌, 탄광, 연구소 등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에 나서는 모습이 강조돼왔다.

시장화 이후 소설에서 나타난 여성의 적극성은, 과거 남성이 활동했던 영역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재현됐다. 여성 전투기 조종사나 여성 과학자 등이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이다. 김정은 시대 국가가 엘리트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강조한 것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조훈일 작가의 단편소설『흰눈처녀』(2020년 1호)와 김영철 작가의 단편소설『사랑은 바다로 흐른다』(2019년 7호)를 통해 시장화 이후 등장한 적극적 여성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은『흰눈처녀』줄거리다.

> 리지성은 제대군인 출신 당원으로, 과학연구사다. 고향에 방문한 그는 자신의 신붓감을 찾는 어머니에게 김책공업종합대 친구 리현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
> 리현아는 리지성을 비롯한 남성들보다 뛰어났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두각을 나타내고, 3개 외국어를 하며 교우 관계도 좋다. 리지성은 리현아의 도움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습득한다. 수천명이 참가한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리지성은 3위를 차지해 기뻐한다. 하지만 2위를 한 리현아는 1등을 하지 못했다고 슬퍼한다. 이들은 이산화티탄을 나노화하는 주제로 공동논문을 써 최우등 졸업을 한다. 이후 같은 연구소에 배치돼, 졸업 논문을 현실에 도입하는 공동과제를 부여받는다.
>
> 이산화티탄 관련 개발작업을 하던 리현아가 며칠간 자리를 비운다. 리지성은 최종실험을 앞두고 눈밭 위에서 리현아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 이후 리지성은 이현아가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는다. 리지성은 리현아가 자신 몰래 유독가스에 중독되면서까지 이산화티탄 관련 실험을 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
> 리지성이 이야기를 마치자, 그의 어머니는 리현아가 있는 병원에 면회를 가자고 말한다.

리현아는 엘리트 여성을, 리지성은 엘리트 남성을 상징한다. 김정은 시대 주창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들이다. 여성 과학자의 헌신적인 모

습은 시장화 이후 북한 소설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이는 여성 과학자를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이 반영된 것이다.

엘리트 여성을 상징하는 리현아는 엘리트 남성들을 압도한다. 제대군인 출신에 당원인 리지성은 리현아보다 사회경험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적인 능력에서 리현아보다 뒤쳐진다. 리현아는 리지성에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려주기도 한다. 다음은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3등을 해 기뻐하던 리지성이, 2위를 하고도 분해하는 리현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난 이번 경연에서 1등의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었어요.** 내딴에는 새로운 방식을 들고 나가며 자신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패했어요. 1등은 커녕 세명이나 뽑힌 2등 인선자들 속에서나 겨우 끼웠으니 말이예요. (중략) 이제 내가 얼마나 더 박차를 가해야 그를 따라잡을수 있겠는지 도저히 마음을 진정할 수 없군요.》**난 머쓱해진 얼굴로 바보처럼 서있었다. 이 어리석은 지성이? 자그마한 성과에 도취되여 벌써 어깨가 올라가있다니...**나의 얼굴은 서서히 달아올랐다" (pp.41)

국가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도 엘리트 여성이 엘리트 남성보다 우월하다. 리현아와 리지성의 논문 주제는 비슷하다. 이 경우 둘 중 한 명은 논문심사에서 떨어지게 된다. 리현아는 자신의 논문을 리지성에게 양보하려 한다. 다음은 두 사람의 대화이다.

"《**전 이 론문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신 지성동지에게 참고가 되게 넘겨주려고 합니다.**》《?!...》나는 어지간히 놀랐다. 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난 동무가 야심가인줄 알았는데? 1등을 못하고 2등을 한 것이 분하다고 했댔지?》그가 잔잔한 어조를 입을 열었다. 《**내 야심도 조국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가요?**》나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찬탄의 목소리가 튀여나왔다.**" (pp.42)

리현아가 졸업 논문을 리지성에게 양보하려 한 이유는 그것이 “조국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리지성이 “찬탄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자기희생이다. 리지성은 자신이 리현아의 제안을 넙죽 받아들이면 자신이 그릇 작은 남자가 될 것을 염려해, 이를 거절한다.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에서 엘리트 남성은 엘리트 여성에게 뒤처지는 것이다.

엘리트 여성은 여러면에서 엘리트 남성보다 뛰어나지만, 엘리트 남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리현아는 컴퓨터 모의실험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유독가스에 중독되면서까지 실험을 한다. 실험으로 머리카락을 잃은 리현아는 가발을 써, 이 사실을 리지성에게 알리지 않는다. 실험을 계속하다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리현아는 실험을 강행한다. 다음은 리현아가 병원에 실려간 이후 리지성이 리현아의 일기장을 읽는 대목이다.

“《20XX년 X월 X일. (중략) 사람들은 흰눈을 론할 때 그 순결무구함을 말하지만 **흰눈의 진짜매력은 자기희생에 있지 않을가.**》”(pp.11)

“《20XX년 X월 X일. (중략) **유독성 가스제거를 위한 시험은 까맣고 윤기 흐르던 나의 머리칼을 앗아갔다.** 지성동지도 내가 지금껏 방독면을 쓰고 직접 측정한 걸 모르고 있다. 그저 컴퓨터모의시험으로만 알고 있다. **과연 내가 이 모습으로 지성동지옆에 한생 나란히 서있을수 있단 말인가. 오늘 진종일 고민하며 몸부림쳤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흔들리지 말자. **처녀의 아름다움은 무섭게 손상되였어도 조국이 더 아름다워진다면 나는 꼭 자신을 이기고 일어설수 있다.**》”(pp.11)

엘리트 여성과 엘리트 남성의 동지적인 사랑은 ‘남성의 우위’라는 위계질서 안에서 작동한다. 또 남녀의 사랑보다 국가에 대한 사랑이 더 위대하다는

위계질서도 존재한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는, 자연히 여성에게 자기희생을 요구하게 된다. 리현아는 “유독성 가스제거를 위한 시험”으로 “까맣게 윤기 흐르던 머리칼”을 잃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없는 모습으로 “지성 동지 옆에 한 생 나란히 서 있을 수” 없을까봐 염려한다. 여성의 자기희생은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진다. 리현아에게 있어 머리카락은 남성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성적 매력을 상징한다. 남성에게 사랑받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조국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택했다. 여성이 성적 매력을 포기하고, 자신을 무성적 존재로 내던지는 방식으로 국가에 헌신한 것이다. 여성성까지 포기할 수 있어야 국가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라고 국가가 교육하는 셈이다. 국가가 남성에게 헌신을 요구하면서 남성성을 포기하라고 주문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국가가 여성에게 남성보다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XX년 X월 X일. (중략) 오늘 최종시험을 앞두고 지성동지와 사진을 찍었다. 그것이 내가 이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모습이 될는지 어이 알랴. **그러나 이 모습 흰눈처럼 사라져도 지성동지의 추억속에, 조국의 기억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나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왔다. 눈굽이 어느새 축축히 젖어들고 있었다. **자기를 키워주고 가꿔준 사랑하는 내 조국의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결단코 나선 시대의 과학자 처녀!**”(pp.11)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실험을 리현아에게 강요하는 이는 없다. 그렇다고 동료들이 리현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는다. 동료들은 실험 사실을 리지성에게 알리지 말라는 리현아의 부탁만 들어줬을 뿐이다. 남성과 국가를 위해 여성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을 주변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시장화 이후 국가는 엘리트 여성을 육성하는 일을 중시한다. 그간 엘리트

여성들의 활동이 제한받아왔고, 이로 인해 국가는 고급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성 과학자와 결혼한 여성 과학자는 결혼 이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출산·양육을 과학 연구와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01] 또 세대주인 남성 과학자의 커리어가 여성의 커리어보다 우선된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엘리트 여성이 고위직에 오르기 어렵다는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엘리트 여성을 육성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엘리트 여성에게 여전히 남성과 국가에 대한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 남성과 국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든가 "조국의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결단코 나선 시대의 과학자 처녀"라는 리현아의 자기 인식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국가는 엘리트 여성에게 남성과 국가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반격을 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엘리트 여성이 등장하는 『사랑은 바다로 흐른다』를 살펴본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대동강에 빠진 청년을 처녀가 구해준다. 청년은 수중탐조등이라는 어류탐색기구를 발명한 과학연구사 류진이다. 그를 구한 처녀는 수산사업소의 '처녀 선장' 리송이다. 리송이는 청년영웅으로 신문에 난 적이 있다.
>
> 리송이는 수중탐조등을 발명한 류진을 만나러 평양에 왔다. 그러나 류진은 자신을 류진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소개한다. 수중탐조등이 조수가 심한 서해에서 문제를 빚는다는 결점이 있어, 류진 스스로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리송이가 류진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오지만, 류진은 그가 부재중이라고 말한다.
>
> 리송이에게 호감을 느낀 류진은 데이트 신청을 한다. 리송이는 거절한다. 리송이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사위원인 삼촌으로부터 류진의 수중탐조기가 서해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다. 류

101) 박민주, "북한 여성 과학기술인의 지위:북한 과학기술 부문 여성과소대표성의 구조적 요인," 『여성학논집』 제36집 2호, 2019, pp.176

진은 수중탐조등 연구를 위해 리송이가 있는 서해로 떠난다.

엘리트 여성은 엘리트 남성을 구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처녀 선장' 리송이는 소설 초반부 다리에 쥐가 나서 대동강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류진을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구조한다. 엘리트 남성을 구조하는 엘리트 여성이 극적으로 등장한 것은, 시장화 이후 전반적으로 향상된 여성 지위를 배경으로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남성이 맡아온 선장을 리송이가 맡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음은 리송이가 류진을 구조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어느새 다가온 처녀의 팔이 목을 감는 순간에 그는 저도 모르게 필사적으로 매여 달렸다. 이럴 때 매여달리면 구원자도 함께 가라앉는다는 상식을 미처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부지불식간에 **처녀의 손이 그의 얼굴로 날아들더니 다음순간 강한 타격에 관자노리가 지끈하여 그는 의식을 잃었다.**" (pp.59)

엘리트 여성으로서 리송이의 직업적 활약은 청년영웅으로 신문에 실릴 만큼 크게 인정받는다. 태풍 속에서 물고기를 잡는 리송이는 "사느냐, 죽느냐는 생사의 기로"에서 담대하게 행동한다. 리송이와 함께 일하는 여성 어공들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한 국가에게, 여성이 적극적인 노동으로 보답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다음은 리송이에 대해 신문에 실린 글이다.

"더 이상 물고기를 실었다가는 태풍에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였다. 안전하게 돌아가자면 도끼로 바줄을 끊어야 한다. **사느냐, 죽느냐....생사의 기로에 놓인 처녀어로공들...그러나 끝내 바줄을 끊어버리지 못한다.**" (pp.61)

"**파도와 싸우는 처녀들**,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억

세인 모습들”(pp.65)

엘리트 여성의 직업적 적극성은 일상의 적극성으로 이어진다. 리송이는 생명부지의 류진을 찾기 위해 평양에 왔다. 수중탐조등을 이용하면 어획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여성의 주체성 향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여성 주체성은 국가에 대한 헌신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는 남성에게 “충격의 파도”와 같은 존경심을 자아냈다. 다음은 리송이의 발언, 또 리송이와 리송이 어머니의 대화를 들은 류진의 속내이다.

“이 처녀가 불원천리 나를 찾아온 목적이 수중탐조등을 도입하기 위해서였단 말인가? (중략)《**아무튼 난 그 동물 꼭 만나야겠어요. 만나기 전엔 갈수가 없어요.**》그는 순진한만큼 고집도 센 처녀였다.” (pp.64)

“《우리 송인 그저 물고기 한톤이라두 더 잡을수 있다면 천리라두 달려갈 애라니까, 쯧쯧...》《**우리 바다사람들이야 그저 원수님께 기쁨드릴 그 한생각으로 일을 하는거지요. 뭐**》류진은 마치 바다 한복판에 들어서기라도 한 듯 마음속에 파도가 일어번짐을 느끼였다. **다는 알지 못했던 처녀의 정신세계를 새롭게 알게 된 충격의 파도였다.**” (pp.65)

그러나 주체적인 엘리트 여성은 엘리트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문다. 진취적인 리송이의 행동은 류진으로 하여금 수중탐조등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리송이로부터 “심장이 그렇게 작아서 무슨 큰일을 하겠나요?”라는 꾸지람을 들은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이후 소설은 처녀 선장으로서 리송이의 활동보다는, 류진의 반성과 회심에 초점을 맞춘다. 주체성 있던 엘리트 여성의 역할이 엘리트 남성의 자기반성을 돕는 “거울”에 그친 것이다. 여성을 남성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muses)와 같은 위치에 한정시킨

격이다.

“《동무를 만난 첫날 삼촌한테서 이미 들었어요...서해의 어장에는 도입이 힘들다는 걸...그래서 동무가 그토록 고민했구 떳떳치 못한 자신을 애써 감춰야 했다는 걸...》(중략)《난 실망했어요. 어째서 ‘내가 바로 그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그렇게 작아서야 무슨 큰일을 하겠나요?**...”(pp.67)

“그렇다, **처녀는 숨쉬는 《거울》이었다**. 온갖 진실과 인간의 깊은 심연 속까지도 깡그리 꿰여비치는 《산 거울》이었다. (중략) 내가 정말 처녀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였단 말인가?...미안했다. 처녀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다.《**난 믿고싶어요. 동무가 꼭 자기 발명품의 결함을 극복하고 끝까지 완성해내리라는 걸...**》”(pp.67)

이로써 소설 초반부 ‘남성을 구한 여성’은 후반부에 이르러 ‘남성에게 동기부여하는 여성’이라는 위치로 격하된다. 남성을 구하는 여성, 남성을 이끄는 여성이라는 캐릭터는 시장화 이후 소설에서 등장했다. 시장화 이전 소설에서 여성 캐릭터는 주로 남성에게 깨우침을 받은 여성, 엘리트 남성을 추종하는 여성, 국가에 헌신적인 남성을 본받는 여성으로 재현됐다.

그러나 시장화 이후 등장한 엘리트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은, 남성의 보조자적 위치로 한정돼 버렸다. 남성을 뛰어난 여성임에도, 남성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여성을 두지 않았다. 가부장적 국가가 여성의 위치를 남성의 보조자에 두는 방식으로, 여성에게 반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2절 국가 반격의 양상: 갈등의 봉합

북한 소설은 ‘인물 등장 → 갈등 고조 → 갈등 봉합’이라는 공통된 구조

를 띠고 있다. 특정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동시에 국가가 프로파간다를 위해 의도적으로 등장시킨 것일 수도 있다.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 역시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도, 국가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 간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갈등이 봉합되는 부분은 현실의 반영보다는, 국가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갈등이 봉합되는 방식을 통해 국가가 사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시장화 이전 소설에서 등장하는 여성 인물은 주로 현모양처, 슈퍼우먼, 혁명투사로 재현됐다. 공식 영역의 노동과 가정 운영, 공산주의적 이상사회 실현을 위한 짐이 모두 여성의 어깨 위에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그리고 이는 여성의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시장화 이후 소설에서 새로운 여성상이 등장했다. 시장 활동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여성은, 시장화 이전에는 나타날 수 없었던 여성상이다. 집안일·출산·양육과 공적 영역의 노동을 병행하기 위해 슈퍼우먼이 되길 요구받았던 여성이 둘 중 하나를 과감히 포기하는 모습도 새롭게 나타났다. 또 시장화 이후 지적인 능력과 애국심에서 남성을 압도하는 여성이 새롭게 등장했다. 시장화 이전에는 주로 남성의 도움을 받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여성이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변화다.

시장 활동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여성이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여성과 빚는 갈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갈등 봉합'됐다. 사적 이익 추구 여성에게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위협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는 방식이었다.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여성을 사회적 모범으로 내세우는 방법도 쓰였다.

집안일·출산·양육과 공적 영역의 노동 중 하나를 포기하려는 여성이, 두 가지를 역할을 병행하길 원하는 가정 내 가부장적 남성과 국가와 빚는 갈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봉합됐다. 가정 내 가부장적 남성 태도의 변화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여성에게 두 가지 역할을 그대로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또 국가가 현실성이 없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도 사용됐다. 이는 국가가 갈등의 원인을 눈에 보이지 않게 잠시 없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남성과 국가의 지배 연대가 와해될 수 있는 국면에서, 국가가 남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성·국가의 지배 연대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여성에게 더 많은 짐을 요구하는 결과를 낳는다.

지적인 능력과 애국심에서 남성을 압도하는 여성이, 남성과 빚는 갈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봉합됐다. 여성이 남성과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기희생을 하거나, 여성을 남성의 보조자로 위치시키는 방식이었다. 남성은 이 과정을 통해 애국심이 더 큰 인물로 성장했는데, 이는 역으로 남성을 압도했던 여성의 위치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냈다.

시장화 이후 문학작품에 등장한 새로운 여성상은, 작품 후반부에서 여성의 새로운 주체성을 잃어가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를 통해 가부장적 국가가 여성에게 반격을 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부장적 국가는 시장화 이후 지위가 변화된 여성에게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반격을 가함으로써, 여성의 위치를 시장화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가정 내 남성을 받들어 모시고, 아이를 많이 낳아 혁명투사로 키우며 공적인 영역의 노동과 사회 복지를 위한 자원봉사까지 여성이 떠맡았던 과거로 회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는 흔들리는 가부장 질서를 견고히 하고, 나아가 가부장 질서를 바탕으로 한 유일 지배체제의 균열을 막아내려 하고 있다.

제5장 결론

김정은 시대 가부장적 국가는 시장화 이후 변화된 여성의 지위에 대해 주로 전통적 여성 역할 이행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반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된 여성의 시장 활동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

을 잘 달래서 그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국가가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부장적 국가는 시장 활동으로 큰 수익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 계층으로 신분상승하려는 여성에 대해선 처벌 위협이라는 강도 높은 반격을 가했다. 시장의 권력이 정치적인 권력으로 이전·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국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성적 매력을 드러내는 여성에 대해 처벌 위협이라는 반격을 가한 것은, 새로운 여성상의 등장이 가부장적 지배와 공모해 왔던 유일 지배체제를 약화시킬 것을 국가가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화된 여성 활동에 대한 묵인과 독려가 있었지만, 이를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가부장적 국가가 생계유지를 위한 여성의 시장 활동을 묵인한 이유는,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장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엘리트 여성의 사회 활동을 국가가 독려한 것은 어디까지나 고급 여성 노동력 확보라는 국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 '지식경제시대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자는 국가의 상위 담론의 실현을 위해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가부장적 국가가 시장화 이후 변화된 여성의 역할을 여성의 권리와 인권 신장 차원에서 지지해 주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문학작품에서 국가의 반격은 이보다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의 요구와 남성의 요구 중 하나를 과감히 포기하며, 남성을 압도하는 새로운 여성 캐릭터가 등장했다.

그러나 가부장적 국가는 새로운 여성 캐릭터들이 모두 전통적인 여성의 위치로 회귀하게끔 유도했다. 공동체적 압력을 가하고, 국가와 남성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과도한 짐이 일시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또 '국가 - 남성 - 여성'이라는 위계질서를 유지하면서, 여성의 희생을 윤리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방식도 사용했다.

이로써 김정은 시대 가부장적 국가는 시장화 이후 여성의 변화된 지위에 대해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방식으로 반격을 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여성을 시장화 이전의 위치로 회귀시켜, 가정 내 가부장 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유일 지배체계의 균열을 막아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지위 변화된 여성을 향한 가부장적 국가의 반격이 성공으로 끝날지는 미지수다. 여성의 지위 변화의 토대가 된 시장 활동을 국가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은 새로운 주체성을 일부 경험했기 때문이다. 향후 국가는 여성의 수용성 정도에 따라 반격의 형태와 방법을 변주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주체성을 가진 여성과 이에 반격을 가하는 국가 사이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시장화 이후 국가와 여성의 관계에서 '국가'의 시선을 중심에 두고 '반격'이라는 키워드로 북한 사회를 들여다봤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위 향상된 여성을 대상으로 가부장적 국가가 가하는 다양한 반격의 형태를 짚어냈고, 그 이유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 고찰된 개념인 '반격'이 북한 사회에서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포착해 냄으로써, 향후 북한 여성 연구의 징검다리를 놓았다고도 자평할 수 있다. 향후 가부장적 국가가 펼칠 수 있는 반격의 변주들, 즉 국가와 여성 사이의 보이지 않는 힘의 줄다리기는 이후 연구에 맡긴다.

참 고 문 헌

1. 북한문헌

가. 단행본

김정일.『영화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리경해.『녀성문제해결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나. 기타

『로동신문』. 1961년 11월 18일　『로동신문』. 1962년 1월 1일

『로동신문』. 1998년 9월 28일　『로동신문』. 1998년 9월 29일

『로동신문』. 2005년 11월 22일　『로동신문』. 2012년 11월 15일

『로동신문』. 2012년 11월 16일　『로동신문』. 2023년 12월 3일

『로동신문』. 2023년 12월 4일　『로동신문』. 2023년 12월 5일

『로동신문』. 2024년 1월 10일　『로동신문』. 2012~2024년 각 3월 8일

『조선녀성』. 1982년 2호　『조선녀성』. 1982년 4호

『조선녀성』. 2012년 2호　『조선녀성』. 2012년 6호

『조선녀성』. 2012년 8호　『조선녀성』. 2012년 10호

『조선녀성』. 2012년 11호　『조선녀성』. 2013년 4호

『조선녀성』. 2014년 12호　『조선녀성』. 2015년 1호

『조선녀성』. 2015년 4호　『조선녀성』. 2016년 3호

『조선녀성』. 2017년 1호　『조선녀성』. 2017년 3호

『조선녀성』. 2017년 5호　『조선녀성』. 2017년 10호

『조선녀성』. 2017년 11호　『조선녀성』. 2017년 12호

『조선녀성』. 2018년 1호　『조선녀성』. 2018년 5호

『조선녀성』. 2018년 9호　　『조선녀성』. 2018년 10호
『조선녀성』. 2019년 1호　　『조선녀성』. 2019년 8호
『조선녀성』. 2019년 9호　　『조선녀성』. 2021년 1호
『조선녀성』. 2021년 2호　　『조선녀성』. 2021년 3호
『조선녀성』. 2021년 4호　　『조선녀성』. 2021년 5호
『조선녀성』. 2022년 7호　　『조선녀성』. 2022년 8호

『조선문학』. 1992년 8호　　『조선문학』. 2016년 6호
『조선문학』. 2017년 2호　　『조선문학』. 2017년 5호
『조선문학』. 2017년 9호　　『조선문학』. 2019년 7호
『조선문학』. 2020년 1호

2. 국내문헌

가. 단행본

로즈마리 통·티나 보츠. 김동진 옮김.『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서울: 학이시습, 2019)
박현선. 『현대북한사회와 가족』(서울:한울아카데미, 2003)
수전 팔루디.『백래시: 누가 페미니즘을 두려워하는가?』(파주: ㈜북이십일 아르테, 2017)
신경아. 『백래시 정치: 안티페미니즘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파주: 동녘, 2023)
오창은. 『친애하는, 인민들의 문학생활』(파주:서해문집, 2020)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서울: 한울, 1991)
임순희 외.『북한인권백서 2006』(서울: 통일연구원, 2006)
정현철 외,『뻐국새 노래하는 곳』(서울: 살림터, 1994)
프리드리히 엥겔스. 김대웅 역.『가족·사유재산·국가의 기원』(서울: 아침, 1991)

나. 논문

강진웅. “남북한의 국가와 가족: 체제 변화와 가족주의의 변형,”『한국사회

학』 제44집 5호, 2010

강채연. “북한 여성노동력의 경제적 의미와 인권: 사회적 참여정책과 영향을 중심으로.”『아시아여성연구』 제59권 제2호, 2020

공미혜. “페미니즘의 기원과 역사”.『여성우리』, 2019

김경희·강은애·손명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아시아여성연구』 제 55권 1호, 2016

김석향.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담론 변화: 1950년대 이전과 1979년 이후『조선녀성』기사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2005

김창순. “북한의 전국어머니대회에 관한 연구: 어머니의 역할변화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화순. “생존의 정치 Ⅱ:사회주의책임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현대북한연구』 23권1호, 2020

백명숙. “시장화 이후 북한도시에서 공식 및 비공식 노동의 상호작용 패턴에 관한 연구: 평양시 사례를 중심으로.”『북한연구학회보』 제27권 제2호, 2023

송현진. “북한 영웅정치의 변화와 그 요인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현대북한연구』 25권 1호, 2022. “북한 여성의 삶을 역사화하기: 북한 여성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현대북한연구』 26권 2호, 2023

유성애. “북한의 인구 재생산 담론 변화 연구: 여성의 임신·출산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윤철기. “북한 시장화의 정치학:김정은 시대, 경제적 변화의 정치적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38권 제2호, 2022

이기형.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언론과 사회』 14권 3호, 2006

이미경. “이상적인 여성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여성정책:『조선녀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4

이미경·구수미. “경제위기 이후 북한도시여성의 삶과 의식: 청진, 신의주, 혜

산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2호, 2004

이승목. “북한 집단주의 형성 및 변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6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2009

조영주. “북한 여성의 실천과 젠더레짐의 동학.”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1.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정치.”『북한연구학회』 제18권 2호, 2014

조정아. “김정은 시대 북한 여성의 노동과 직업.”『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7월호

조정아·이지순·이희영. “북한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통일연구원』, 2019

조현정·권은별. “시장활동에 참여했던 북한 여성들의 비공식 사회관계망 고찰.”『통일인문학』 제91집, 2022

차태서. “담론분석이란 무엇인가?: 국제정치학의 경우.”『국제·지역연구』29권 1호, 2020

통일부·북한대학원대학교·글로벌리서치.『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 2023

한정숙. “알렉산드라 콘론타이와 여성주의.”『러시아연구』 제18집 2권호, 2008

홍제환·김석진 등.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통일연구원』,2020

다. 기타

“구소 북 장악음모 ‘결정적 자료’쉬킨중장 비밀보고서 내용·의미.” 『한국일보』 1995년 8월 14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199508140048534504

통일부. “북한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에 제출한 자료. 2021년 10월;

https://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78013

3. 외국문헌

가. 단행본

나. 논문

ABSTRACT

The state responses to the changing status of women in North Korea under Kim jong-un

- Focusing on state's discourse and literature -

Kwak, Hee Yang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irected by Prof. Kim, Sung Kyung

This study aims to analyse how the state has responded to the changing status of women after marketisation. Since the mid-1990s, women who have gained economic power through the market have come to value private interests more than in the past. They married as late as possible, avoided multiple births, and divorced more often. This poses a threat to patriarchal states (such as the North Korean regime) whose sole rule is based on the oppression of women. Patriarchal states are forced to respond in some way to women.

The keyword "backlash" is a reference point for how states respond. A backlash is the use of coercive force by individuals or groups to regain "power that was once enjoyed but is now lost". The paper argues that the state's response will be manifested in four attitudes. They are: "education" to fulfil traditional female roles, "threats of punishment" to maintain traditional female roles, "acquiescence" to changed female roles, and "encouragement" to change female roles. "Education" and "threats of

punishment" for maintaining traditional female roles were defined as "counterattacks.

"An examination of the Rodong Sinmun's coverage of the 4th and 5th National Mothers' Congresses, the 3-8 International Women's Day, and Korean Women's Sexuality reveals that the patriarchal state has primarily counterattacked women in the form of "education" for traditional female roles. This is due to the irreversibility of widespread women's market activities, and the risk that the 'threat of punishment' to women who engage in intense labour will provoke a backlash against the state.

The patriarchal state has responded to market activities that bring in 'big profits', the 'distinction' into a higher class based on this, and the 'threat of punishment' for displays of sexual attraction, which is a new phenomenon since marketisation. It is analysed as a way of preventing the principles of working class and people's equality that underpin North Korean society from being disrupted, and to prevent the market economy from becoming larger than the planned economy.

The paternalistic state "tolerated" market activities for livelihoods. This was because the state could not take over the role of the market in meeting the needs of the people. Elite women were 'encouraged'. However, this was due to the state's need for a high quality female labour force, not an endorsement of women's changed status.

"The state's counterattack in the literary works of the Chosun Literature was more complex. After marketisation, new female characters emerged in literature. A woman who pursues private interests in the marketplace, who is willing to choose between the needs of the state and the needs of men, and who overpowers men.

However, the patriarchal state induced all of these new female characters to

return to the traditional position of women. It did so by exerting communal pressure, temporarily masking the burdens imposed on women, and morally justifying their sacrifices.

This confirms that the patriarchal state is fighting back against the changed status of women after marketisation in a plural and layered way.

We have seen that patriarchal states fight back against women whose status has changed, trying to plug the cracks in the country's sole dominance based on patriarchal order.

Key words

patriarchal state, North Korean women, marketization, coexistence of planned and market economies, National Mothers' Conference, March 8 International Women's Day, Labor Newspaper, Korean femininity, Korean literature, Backlash